



서울가족 보고서

I

서울시 가족의 현재와 미래

- 1. 서울시 가족의 현재
- 2.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과 목표

II

서울시 가족정책 범주별 현황과 과제

- 1. 믿고 안심하는 돌봄이 있는 서울
 - 1)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돌봄
 - 가. 믿음만한 보육과 돌봄이 필요한 서울 가족
 - 나. 안심하고 아이와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서울
 - 다. 서울시민의 돌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
 - 2) 서울시가 관심을 갖는 초등돌봄
 - 가. 초등돌봄이 필요한 서울 가족
 - 나. 취학 아동 돌봄을 책임지려는 서울
 - 다. 서울시민의 초등돌봄교실 이용과 요구
 - 3) 서울시민의 일과 돌봄 사이의 시간충돌
 - 가. 부모로서 시민이 경험하는 자녀돌봄과의 시간충돌
 - 나. 서울시민의 시간충돌 해소를 위한 요구

2. 일·쉼·삶이 있는 서울

- 1) 생활시간 빈곤에서 벗어나기
 - 가. 바쁜 삶에 쫓기는 서울 가족
 - 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 2) 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 가. 제도는 있는데 이용은 어려운 서울 가족
 - 나.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하는 서울
 - 다.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

3. 모든 시민이 적당한 생활을 누리는 서울

- 1) 주거안심
 - 가. 주거문제로 불안한 서울 가족
 - 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
- 2) 생활안심
 - 가. 생활이 불안정한 서울 가족
 - 나. 안정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서울
 - 다. 서울시민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및 생활안심을 위한 요구
- 3) 위기지원
 - 가. 살면서 한번쯤 위기를 경험하는 서울 가족
 - 나. 가족의 위기 해결을 지원하는 서울
 - 다. 서울시민의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4. 서울가족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서울

- 가. 가족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가 필요한 서울 가족
- 나. 쉽고 편리한 가족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 다. 서울시민의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





서울시
가족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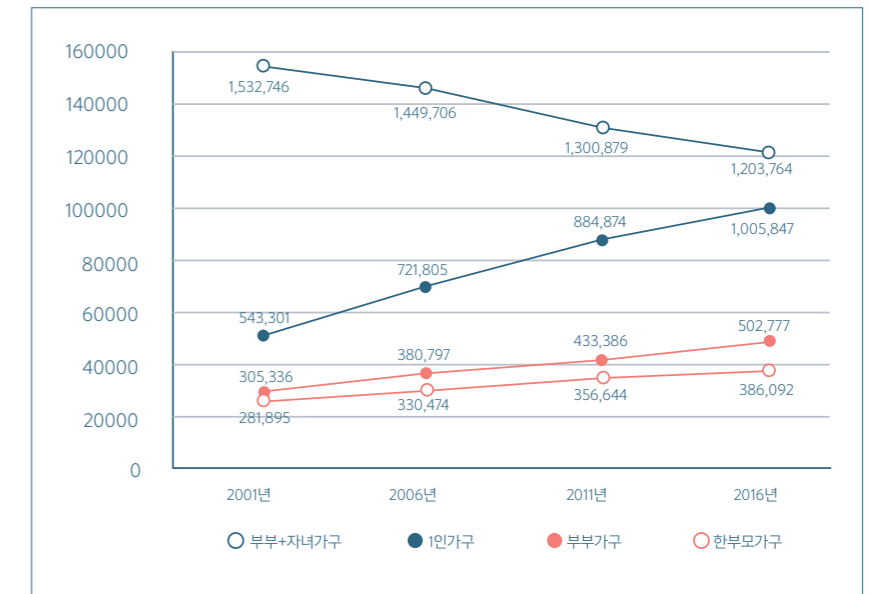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현재 모습

01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핵가족은 현저히 줄고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증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가구는 2001년 약 150만 가구에서 2016년 약 120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대신 1인가구는 2001년에서 2016년 사이 약 54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부부만 사는 가구는 2011년 30만여가구에서 2016년 50만여가구로 약 20만 가구가 증가하였고, 한부모가구는 28만여가구에서 38만여가구로 약 10만 가구가 늘어났다.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만이 아니라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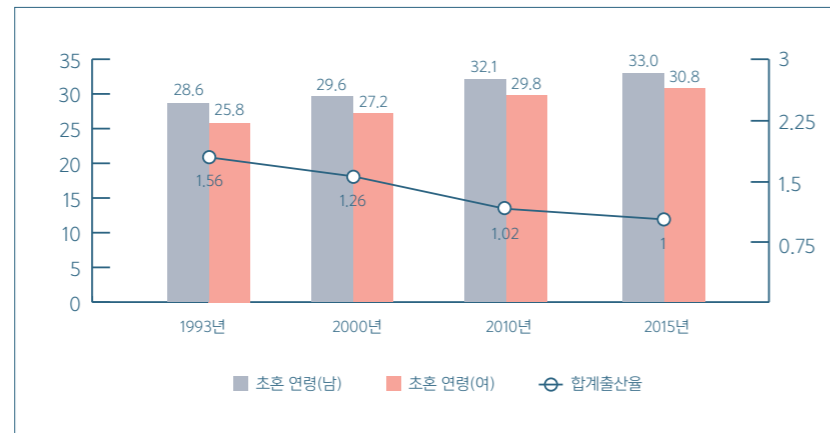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KOSIS, 가구조의 연령/가구유
형별 추계가구. 서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경향 강화

늦은 결혼과 혼자 사는 사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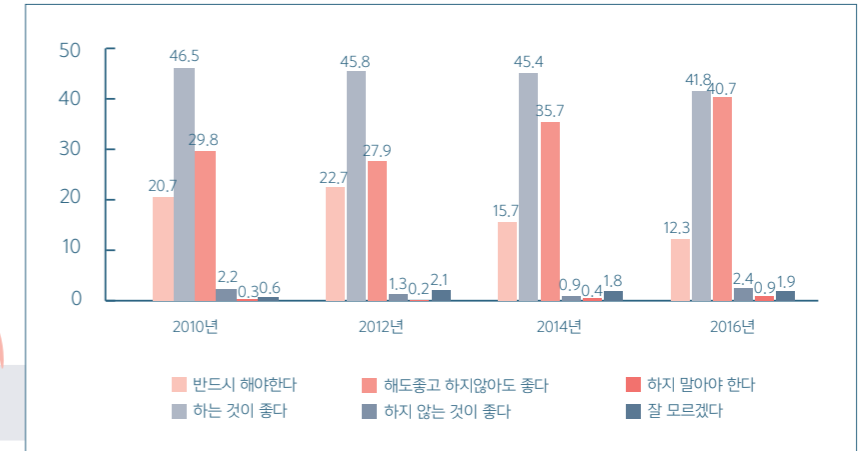
점점 혼자서 개별적으로 사는 비율이 늘고 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기 보다는, 혼자 사는 생활스타일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남자와 여자 모두 2-3년 더 늦게 결혼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남자의 초혼연령은 2016년 33세, 여자의 초혼연령도 평균 31살이 되었다. 저출산율도 뚜렷하여 1993년 1.56이던 출산율이 2015년 1.00명으로 감소하였다(서울시 기준 합계출산율 자료).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평균(1.17명)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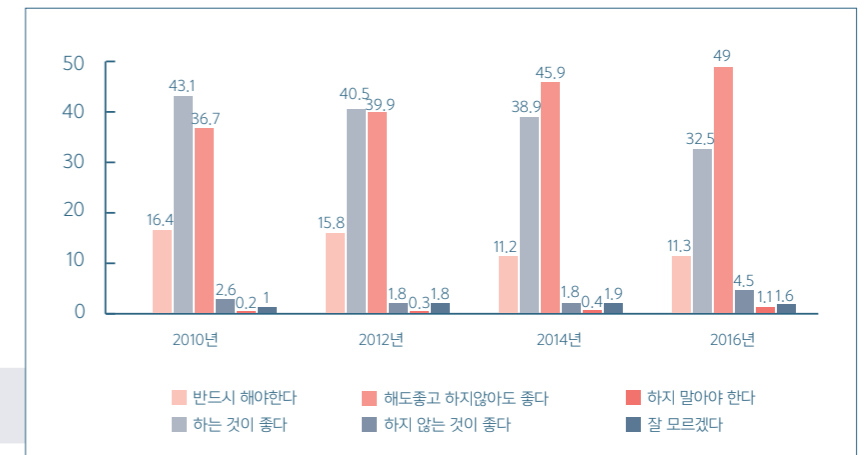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줄어들고 있으며, 점차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견해 (남성)



결혼에 대한 견해 (여성)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사회조사」, 2년 단위 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

이혼의 증가, 황혼이혼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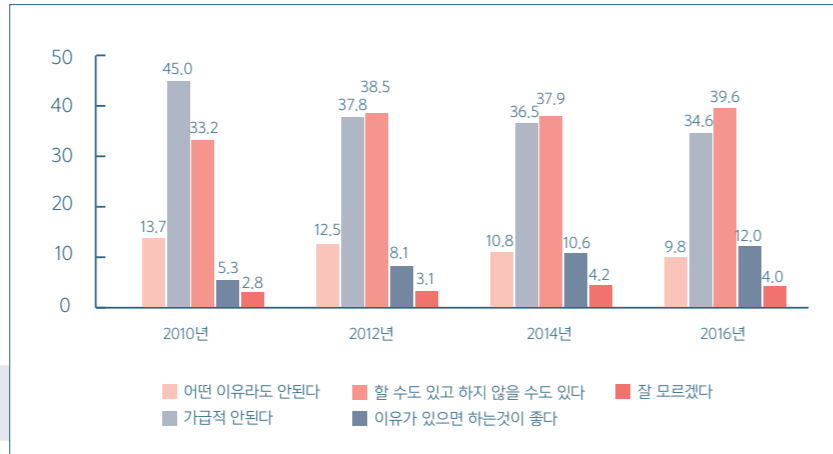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부모가구 중에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로 올수록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총 이혼건수 10만7천3백건 중 황혼이혼의 비중은 3만2천6백건으로 전체의 30.4%로 다른 부부들 중 가장 많았다.

이혼에 대한 태도, 개방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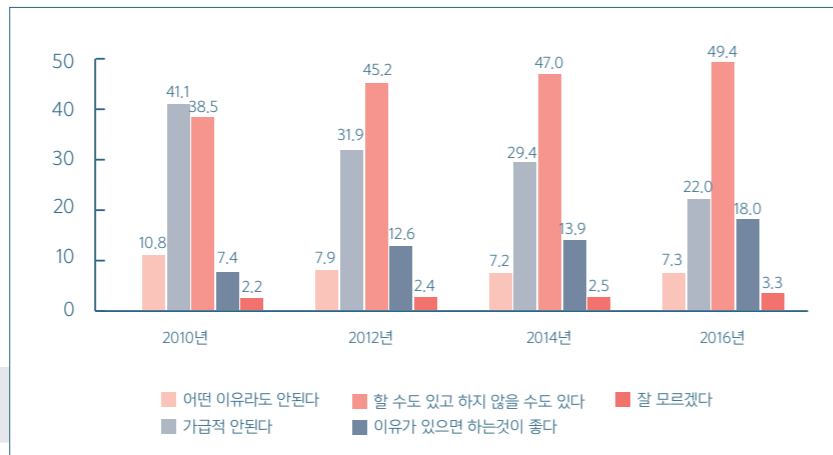
이혼에 대한 견해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혹은 '가급적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혼에 대해서 여

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으로 결혼생활이 불행해도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산다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족관계나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부관계 상담, 이혼 위기 상담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다.

이혼에 대한 견해 (남성)



이혼에 대한 견해 (여성)



출처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사회조사」, 2년 단위 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

노부모 부양책임 약화와 국가 책임 인식 강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60.7%(2006년)에서 29.6%(2016년)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자녀와 정부·사회 공동책임은 29.1%에서 45.6%로 높아졌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7.7%에서 19.2%로 증가하였다. 향후 노후 생활유지도 중요한 가족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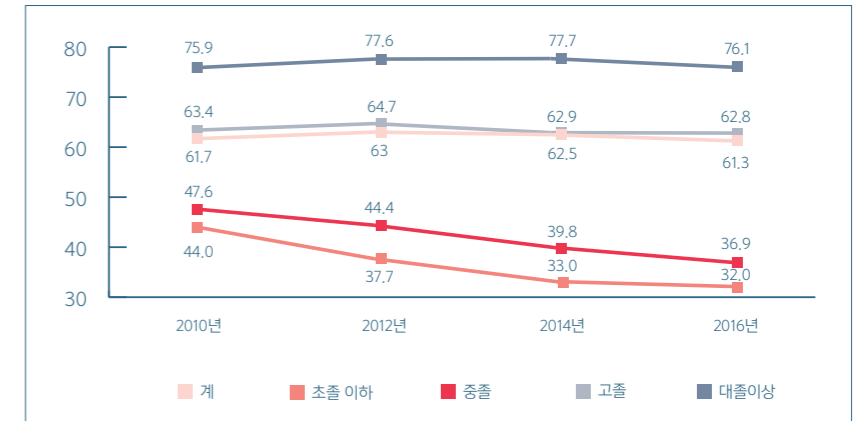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와 일가족양립의 요구 증대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61.3%로 전국평균 대비 약간 높다. 교육정도별 패턴은 유사한 양상이다. 그러나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 중 대학교를 마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졸이나 중졸이하에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서울특별시)

출처 KOSIS, 행정구역(시도)/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인구-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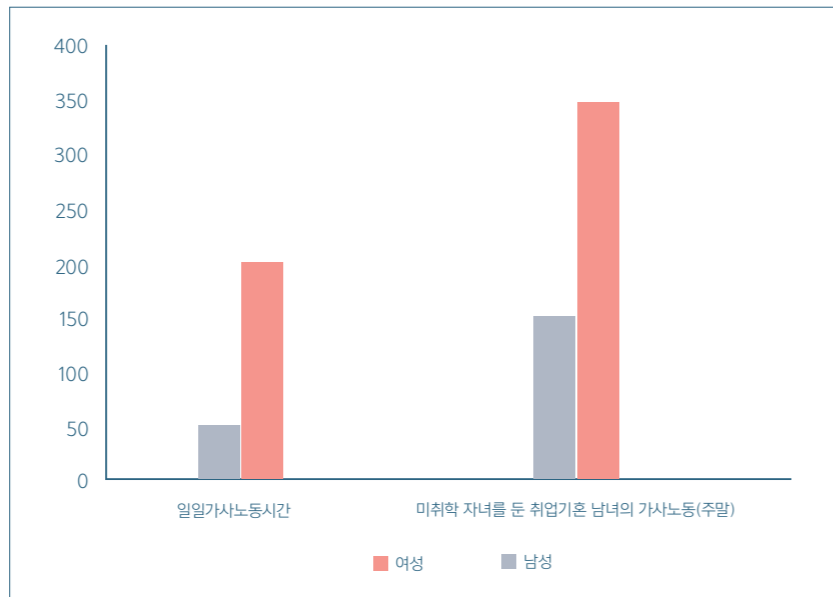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 증가와 여성의 집안일 부담 과다

서울시는 맞벌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 현재 877만 가구가 맞벌이로 일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40.1%에 달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문화로 집안일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77분으로 남성의 5.9배(통계청, 2014년), 자녀돌봄도 93분으로 남성의 4.6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에 달한다. 이와 같은 남녀별로 집안일을 위한 시간이 차이가 많아 부부간 갈등유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일가족양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

구분	가사노동			자녀돌봄	
	'99년	'09년	'14년	'99년	'09년
남성	19분	26분	30분	13분	20분
여성	231분	204분	177분	84분	93분

일하는 기혼여성의 일일 가사노동시간은 207분으로 58분인 기혼남성의 4배에 해당한다. 같이 일을 하더라도 가사는 여성의 몫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에게 주말의 가사노동 또한 집중되어있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남성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158분인 반면 여성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334분으로 가사노동을 남성보다 약 3시간 더 하는 모습을 보인다(통계청, 2014).



아이를 돌보는 시간 역시 여성은 평일 5.9시간, 주말 8.7시간으로 남성의 2시간과 4.9시간보다 많은 모습을 보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일 2.9배, 주말 1.8배의 시간을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하는데 시간을 사용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구분	보육시간		개인시간 대비 보육시간 비중(%)	
	평일	주말	평일	주말
남성	2.0	4.9	63.9	70.3
여성	5.9	8.7	82.0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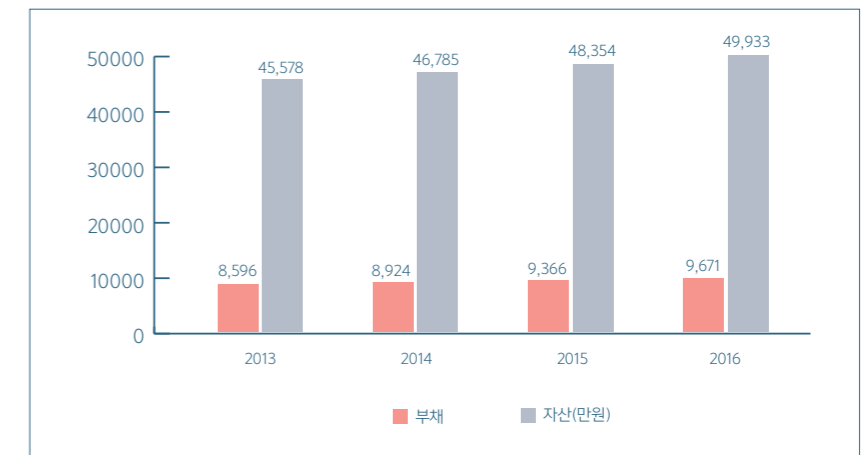
04

불안정 위험에 놓인 가족들 증가

불안한 가계를 꾸려가는 가족들 증가

서울시 가구의 평균 부채액수가 상당히 높다. 주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인해 발생하였다.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2013년 8,596만원, 2014년 8,924만원, 2015년 9,366만원, 2016년 9,671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4년 사이 가구당 평균 천만 원 넘게 부채가 늘어났다. 전체 가계자산 중 약 20% 정도가 부채로 이루어져 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울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



한부모가족, 여러 위험 처해도 저소득층만 보호

서울시에도 한부모가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은 189.6만원으로 일반 평균 가구 처분소득 437만원(「2015년 가계동향조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거상황을 보면 자가 21.2%, 전세 22.6%, 보증부 월세 26.4%, 가족이나 친지의 집에 무상 거주 15.2%로 상당히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음식 및 숙박 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들을 돌보거나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부모가족 중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한부모

는 24.7%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도입된 곳은 각각 8.4%, 5.1%에 불과하다. 한부모가 된 후 육아휴직제도 사용 경험자가 5.3%에 불과했으며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7%로 거의 대부분 제도의 바깥에 놓여있다(서울여성가족재단, 2016). 차상위층 이하의 한부모가족만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아동양육비는 12만원에 불과하여 기본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전한 차별적 시선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국제결혼이나 결혼이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많고, 이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가족을 이방인,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차별의 벽이 존재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가부장적 문화에 따라 다문화가족내 가정폭력이 69.1%로 일반 가족(53.8%)에 비해 높다. 서울시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 비중이 12.2%(2015년, 통계청)로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심지어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2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과 목표

서울시 가족정책은 서울시 가족들이 직면한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고, 앞으로도 그 지향을 가져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의 모든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한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과 목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물론 어떤 유형의 가족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포괄적 가족정책

서울시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거대규모의 도시에 속한다. 광역도시(metropolitan city)답게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1인가구, 한부모가족, 공동체가구 등 결혼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족들만을 위한 가족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다양화하는 가족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전통적 가족은 물론 근래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서울시 가족정책은 부부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소득층에 따른 보호를 넘어 모든 가족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보편주의 가족정책

이제까지의 가족정책은 '저소득층(특히 극빈층)'이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적 성격이 강했다. 이로 인해 소위 일반가족은 가족정책 대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고, 서울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정책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보편주의 지향을 가져야 한다. 저소득층 가족만을 위한 정책은 계층간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며, 수혜 그룹도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위한 최소한의 수혜 방식을 벗어나고자 한다. 모든 가족이 자녀양육과 가족생활로 인해 생겨나는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 방식을 지향한다.

성별 불평등과 계층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지렛대 역할로서의 가족정책

서울시는 가족정책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계층별, 성별, 가족형태별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실제로 가족안에서 구성원간에는, 혹은 계층별이나 가족형태별로 가족간 정책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정책 혜택의 불균등성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과 시행단계에 보다 세심한 접근(sensitive approach)을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은 모든 가족들을 위한 보편주의 지향을 가지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가족들을 포용하는 부가적 정책을 고민하여, 서울시의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가족내 개인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정책

가족정책은 오랫동안 관습 때문에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점차 개인의 자율성과 인권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정착되어가는 만큼, 서울시 가족정책은 '단위로서의 가족'만이 아니라 개별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동시에 인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민감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즉 가족정책을 '가족 집합체' 관점이 아니라 '따로 또 같이' 관점을 적용시키면서, 가족구성원내에서 공통적 욕구를 공유하지만 동시에 가족내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와 차이가 있음을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민감하게 반영한다.

시민이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의 가족정책은 재정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만일 서울시민들이 가족정책을 주로 정부는 시행하고, 자신들은 정책 혜택을 받는 주체로만 전제하게 되면 가족정책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 역할과 책임을 더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족정책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가족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것과 같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동반한다. 시민의 참여 유도, 다양한 관련 집단으로부터의 의견수렴과 조율, 자발적 지역주민 공동체 결성을 통해 가족정책 결정과 전개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쌍방향의 가족정책을 지향한다.

서울시 가족정책의 목표는 “일·쉼·삶이 있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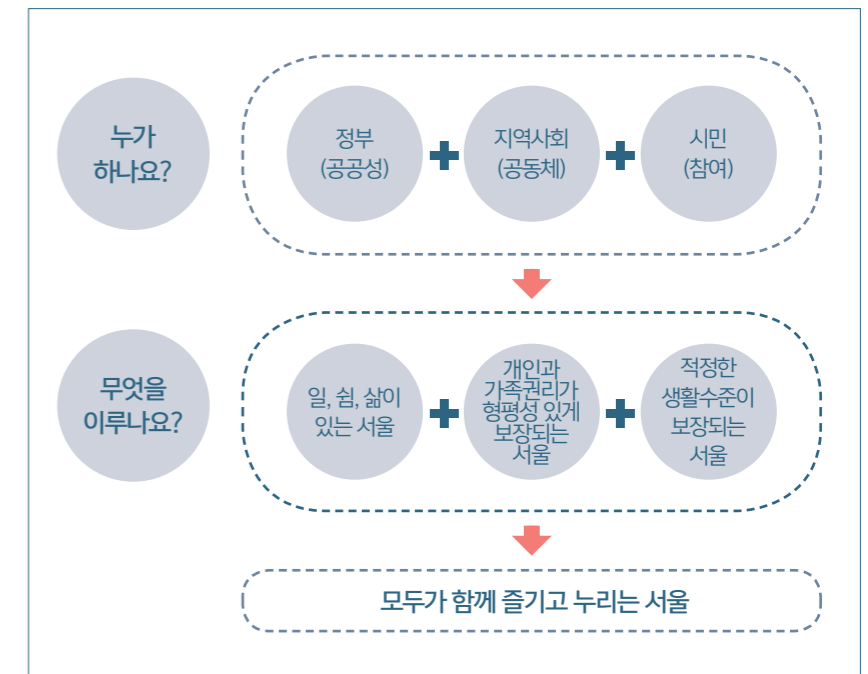
서울시는 가족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정책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양극단에서 벗어나 모든 서울시민이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렇다면 서울시 가족정책이 만들어갈 이상향은 어떤 것일까? 서울시 가족정책은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빈곤, 시간적 빈곤, 관계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관계적 여유를 가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 가족정책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일하고, 쉬고, 돌보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쉼·삶이 있는 서울”이다. 계층별, 성별,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일·쉼·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가족정책의 목표 “일·쉼·삶이 있는 서울”에 이르기 위한 실현방법: 가족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속에서 가족문제는 가족에게만 책임을 넘기기 않고 가족,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해결하려는 지향을 가졌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공공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지원과 서비스 양을 증가하는 하향식 방식을 넘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이들과의 공동체 모색을 과정에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가족정책은 가족만 홀로 고군분투하는 방식도, 정부가 과잉 역할을 하는 방식도 지양한다. 오히려 정부/지자체, 지역사회공동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일생활의 균형과 가족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방법을 중심에 둔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족과 지내며, 원하는 만큼 개인으로서 실현해나가야 할 것들을 추구하도록 한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생활에 치여서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여유를 회복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정

부/지자체, 지역사회공동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쉼·삶이 있는 서울”을 만들어갈 정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즐기고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서울시 가족정책 주체와 지향성





서울시
가족정책
범주별
현황과 과제

1 믿고 안심하는 돌봄이 있는 서울

01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돌봄

아이에 대한 보육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서울 시민이 많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을 위한 돌봄 기관과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상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긴급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및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도 확장해 왔습니다. 치매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서울형데이케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돌보는 서울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가 제공하니 이용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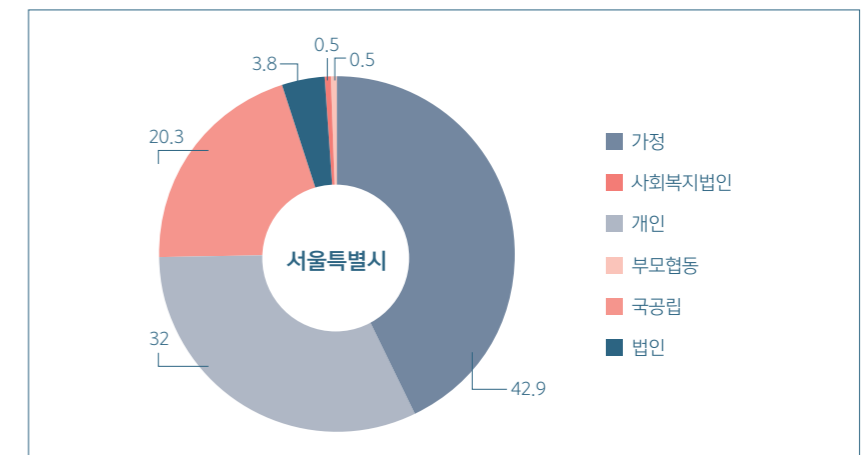
가. 믿을만한 보육과 돌봄이 필요한 서울 가족

◎ 서울시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약 20.3%정도이며 2015년~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1천 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7). 2016년 현재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약 6.8%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별 비율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portal/info/chart.do>



서울시 어린이집 경쟁률은 116대 1이다. 특히 국공립형 어린이집은 대기자만 경쟁률이 442대 1이다(머니투데이, 2016/9/28). 2016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유형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아 대기자 비율이 58.7%로 가장 높다.

어린이집 유형	정원	현원	보육포털 대기 신청자	대기자 비율(%)
계	270,231	236,231	875,487	100%
국공립	74,851	67,240	489,919	58.7%
민간	117,842	102,575	232,806 (서울형:70,280)	25.9%
가정	51,025	46,284	117,352 (서울형:29,466)	11.0%
기타	26,513	20,451	35,410 (서울형:6,120)	4.5%

◎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은 현실

서울시 유치원은 국공립이 197곳, 사립이 691곳으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의 3배가 넘는다(통계청, 2016).

서울시 유치원 유형별 원아 수 현황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2016
<http://kess.kedi.re.kr/index>

◎ 유치원도 국공립 비율이 낮은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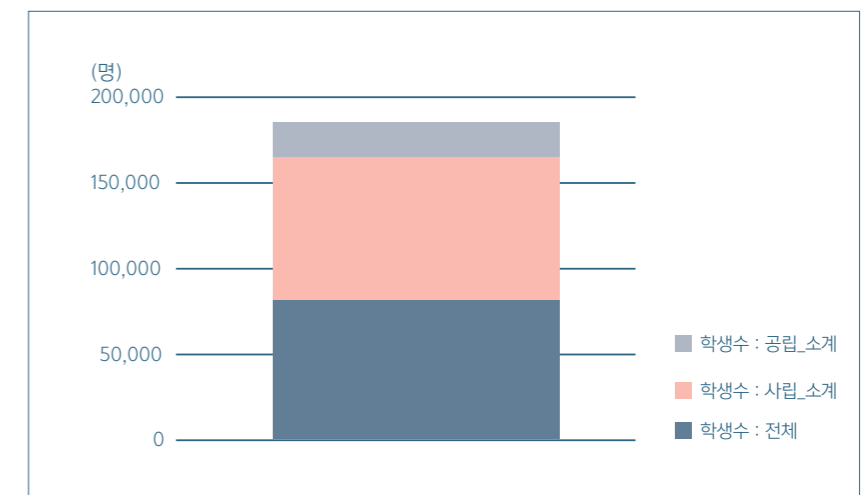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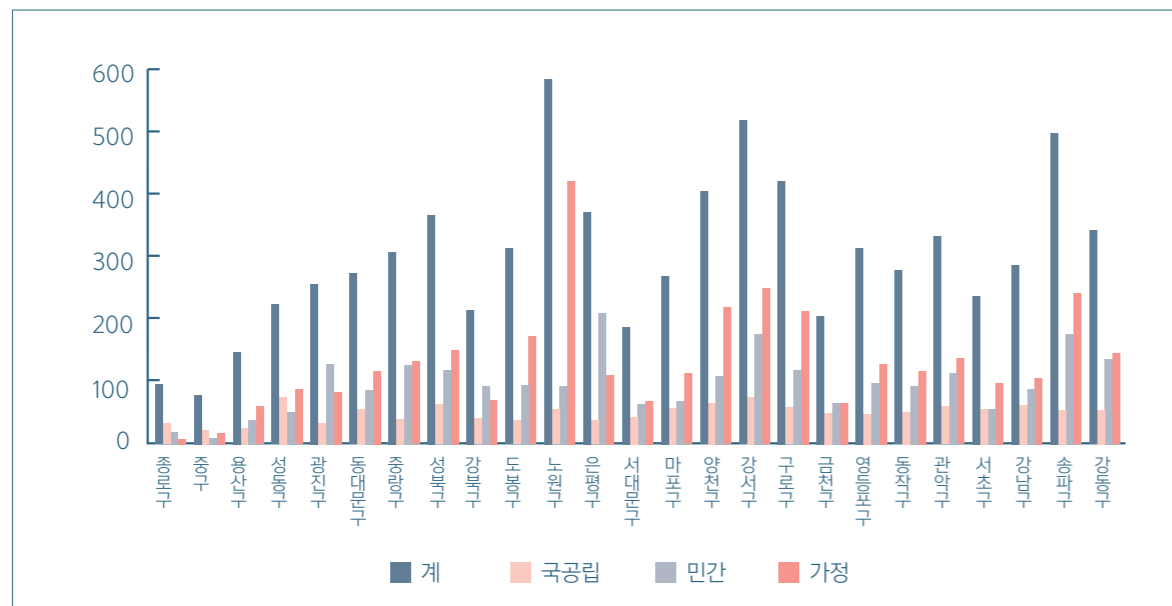
서울시 유치원은 국공립이 197곳, 사립이 691곳으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의 3배가 넘는다(통계청, 2016).

◎ 만족스럽지 않은 유치원 방과후(종일반) 운영 현실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평일 평균 이용 시간은 약 7시간이다. 취업모 아이의 경우 7시간 38분이었고, 비취업모의 경우 6시간 23분으로 큰 차이는 없다(보건복지부, 2015). 그 이유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종일반)의 하원 시간이 이르거나, 경쟁률이 높아 취업모 아이의 입소 자체가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유치원 방과후(종일반) 이용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실제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부모 중 맞벌이여서 아이를 맡긴다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별 어린이집 유형 비율

출처
서울특별시청 서울통계자료실.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7100.jsp?re_stc_cd=71&re_lang=kor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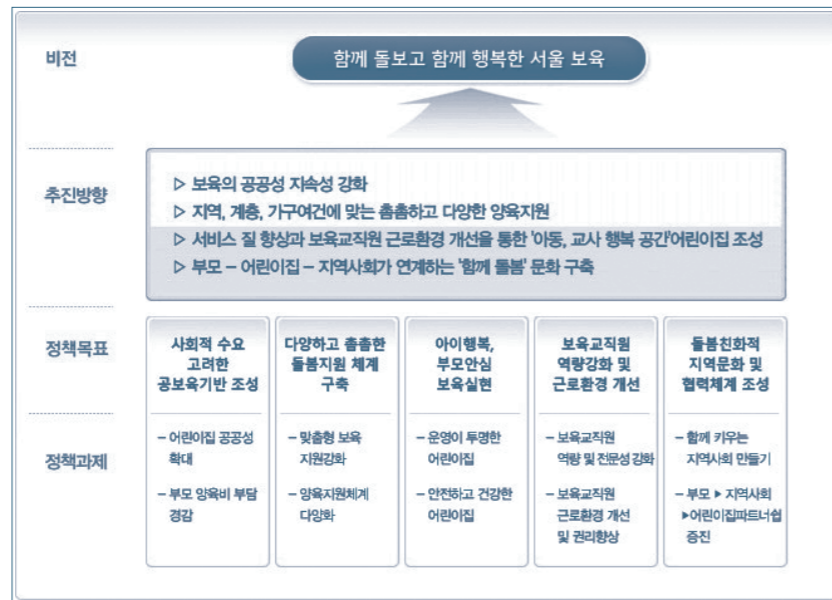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10명 중 한명은 노인이고, 노인 5명 중 한명이 독거노인이다.

서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인 서울요양원이 있으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가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도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안심하고 아이와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서울

서울시 보육 추진체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
archives/19729



◎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공보육기반 조성

서울시는 영유아, 아동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공보육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전국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약 7.5%인데 비해 서울시의 경우 2017년 5월 기준 약 23.4%에 이른다(서울시 내부 자료). 향후 전체 어린이집의 약 28%, 이용 아동 기준 약 50%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천 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래 표는 2017년 5월까지의 확충 현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

구분	'11년말	'13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5월
국공립 승인 비율	10.8%	12.8%	16.9%	22.3%	23.4%
국공립 개원 비율	10.8%	11.1%	14.0%	16.8%	19.3%
미설치동	37개동	16개동	13개동	7개동	6개동
1개설치동	211개동	137개동	93개동	65개동	63개동
2개이상 설치	173개동	268개동	315개동	352개동	355개동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배치

자치구별 형평성을 위해 동 기준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미설치 동은 6개동으로 줄었다. 1개만 설립되어 있는 동도 감소하여 현재 63개 동이다. 2개 이상 설치 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55개 동이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다.

◎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서울시가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1:1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 양육경험이 많은 중장년층 아이돌보미와 2013년 전국 최초로 양성한 ‘대학생 아이돌보미’가 종일제 및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종일제는 0세아(3개월~12개월)를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및 일반 돌봄을 제공하며 월 200시간까지는 100만원의 이용료 중 소득기준에 따라 40만원~70만원까지 지원.
- 시간제는 아동(3개월~만12세 이하)의 일시보육, 등·하원 돌봄, 학습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하며 시간당 5천원(심야, 주말 6천원)의 이용료 중 소득기준에 따라 1~4천원까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1명 증가 시 시간당 2,500원씩 증가.
- 서비스 이용신청 : 해당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이 돌봄 및 긴급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서비스 종류에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서비스와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서비스가 있다. ‘긴급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기존 성북구 1개→강동구, 성동구, 영등포구, 강서구에서 2016년 11월부터 시행.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보육 해결을 위해 2016년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를 시작(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6).

-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송파구에서 10월 시작.

-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첫 운영 : 어르신 일자리 연계 90명 양성, 7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 ‘긴급보육 거점시설’ 11개소 운영 : 어린이집 이용 유무 상관없이 22시까지 이용 가능.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archives/45848>

I·SEOUL·U
내려 내려가세요

SEOUL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으시나요?

“서울시의 긴급보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긴급 보육(돌봄) 거점시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p>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60시간이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신체건강하고 육아 경험이 있는 60세이상 어르신들이 돌봐드립니다.</p> <p>! 이용내용 동·하원동행, 긴급일시돌봄, 부모모임시 임시돌봄 등</p> <p>! 이용지역 성동,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영등포</p> <p>! 이용시간 7시~20시</p> <p>! 이용대상 6개월~9세(초2)자녀를 둔 부모</p> <p>! 이용료 시간당 7천원~8천원 (서비스내용 따라 이용료 차등)</p> <p>! 수행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88-9091</p>	<p>자녀시간에 갑자기 일이 생겨 자녀를 맡겨야 할 때 지역 내 긴급보육 거점시설로 지정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을 제공해드립니다.</p> <p>! 이용지역 광진, 서대문, 영등포, 365어린이집(노원, 양천, 관악), 아간시간제보육(중랑, 구로)</p> <p>* 준비 중 : 성동, 성북, 강북</p> <p>! 이용시간 평일 18시~22시</p> <p>! 이용대상 미취학 영유아(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미이용자 포함)</p> <p>! 이용료 시간당 3천원(시간연장보육 이용료)</p>	<p>갑작스런 응급이 발생했을 때 만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를보육이 직접 방문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p> <p>! 이용지역 성북, 성동, 영등포, 강동, 강서</p> <p>! 이용시간 0시~24시</p> <p>! 신청시간 9시~18시</p> <p>! 이용료 1,825원~6,500원 시간당</p> <p>! 수행기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2514</p>

이용안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772-98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2514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2)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보육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서울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위해 2015년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보육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

- **보육교사 공적지원시스템 체계마련 및 운영**
보육교직원 모집 후 사전시험, 교육하고, 평가를 통과한 교사의 경우 교사의 경력과 거주지 등을 인력풀에 등록하여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인력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구인구직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모집, 선발, 교육, 인력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채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
- **보육교직원 콘텐츠 개발,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서울시 보육철학과 보육공공성의 이해, 보육정책의 이해, 인권 및 젠더 감수성, 교사의 윤리 및 책무, 현장중심의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맞춤 보육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활성화, 고충상담 및 처리,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권리 구제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

◎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서울시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236개이다(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어린이집, <http://iseoul.seoul.go.kr/portal/info/preSchoolList.do>).

직장보육시설 컨소시엄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확대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 컨소시엄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보육 관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반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육 지원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경 2km 내외에 보육반장이 1명씩 있을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시적인 육아 지원 이외에도 간헐적인 육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아이 돌봄만 담당했던 보육반장이 노인, 장애인, 1인가구, 한부모 자녀 등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보육반장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하는 기간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보육교사 3급이상,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이다. 보육반장 지원 서비스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상담도 가능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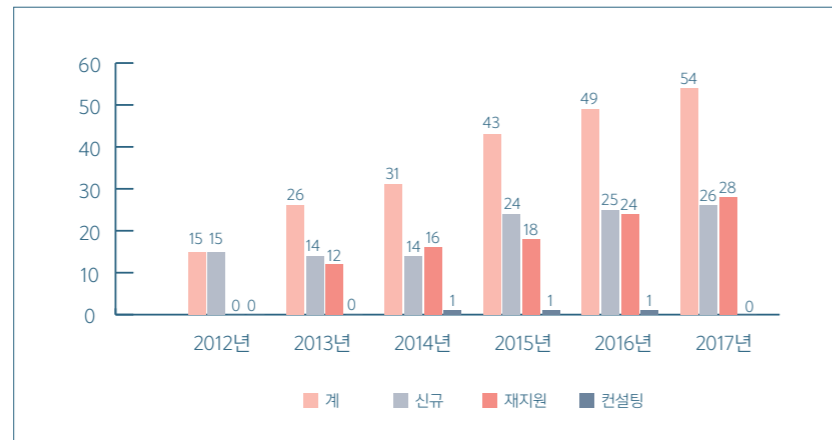


<http://iseoul.seoul.go.kr/portal/boyukChief/boyukChiefInfo.do>

◎ 마을공동체 및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 : 함께 살기

서울시는 도시 속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및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현황



출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intro/directorate.asp>

센터 설립 과정 - 마을공동체를 꿈꾸던 사람들

●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플뿌리시민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담회 총 3회 동안 약 500여명이 참석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안

● 행정지원체계 구축
법제도, 민관협치기구 구성, 광역-자치구 집행기관 신설 등 마을공동체를 위한 기반 마련

2012.2 법제도 마을공동체 조제 제정

2012.2 민관협치기구 구성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2012.3 광역 집행기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실 설치

2012.8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3 자치구 집행기관 자치구 마을(리)팀 생성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지역발전형 마을공동체 지원 본격화', 2016/07/29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8225&act=VIEW&boardId=28225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난 4년간 129,884명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자치구에서 펼쳐진 교육과 상담, 지원 사업 등을 합하면 마을업 참여자는 약 20만여 명이다.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마을에 오래 살고 싶다'는 정주성이 마을사업 참여자는 88.4%였던 반면 서울시 전체 조사에서 59.4%(2016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성도 87.6%로 집계돼 전체 국민 대상의 통계청 조사 80.%(2015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 OECD조사 (2016 Better Life Index) 75.8%에 비해 크게 앞섰다.

사례

출처
성동구 자생담당자, "성동구의 마을공간(성수다방)과 주민모임연합(성동구 공동육아 연합)을 소개합니다!" 에서 요약 발췌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asp?id=105&years=&sigungu=&searchVal=&pageno=1>)

‘뜨는 동네’ 성수동 ‘뜨는 공간’ 성수다방



마을 공간, 마을의 이야기 / 성수다방은 북카페처럼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꾸준한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일터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이어가자는 취지를 띄고 있다.

성동구 공동육아 연합 ‘성공연’의 도약 첫 번째 간담회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 간담회의 제목처럼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모인 것이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주민 3인 이상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 지원을 할 수 있다.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support/introduce.asp>



◎ 건강가정지원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등 활성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지원을 확대해 왔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이용 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등에 참여하려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공고를 보고 참여할 수 있다.



<http://www.familynet.or.kr/index.jsp>

◎ 사회적 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케어센터의 10%를 지역 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해 18년까지 1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뉴시스, 2015/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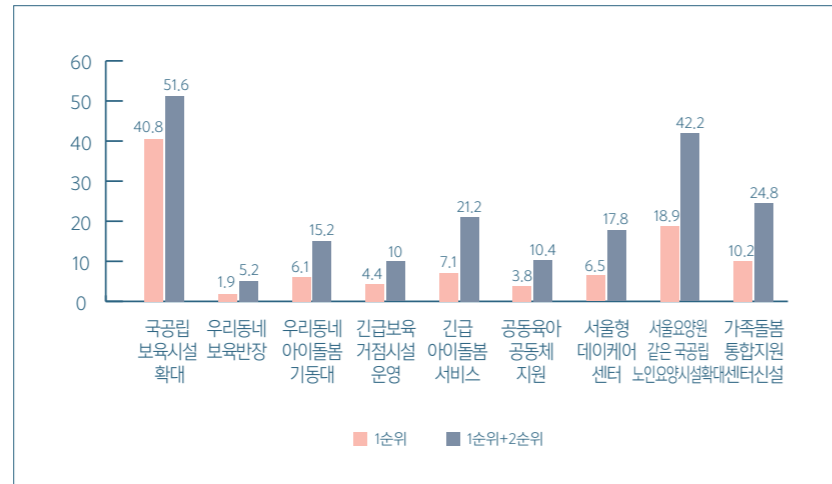
다. 서울시민의 돌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

서울시 돌봄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는 안다고, 약 50% 정도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돌봄정책 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인지된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70% 정도)이었으며, 긴급아이돌봄서비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그 뒤를 이었다.

사업명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국공립 어린이집 실질적 확대		55(5.4)	250(24.3)	426(41.5)	274(26.7)	22(2.1)
2. 우리동네 보육반장		232(22.6)	410(39.9)	277(27.0)	98(9.5)	10(1.0)
3.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242(23.6)	404(39.3)	249(24.2)	114(11.1)	18(1.8)
4. 긴급 보육거점시설 운영		244(23.8)	380(37.0)	283(27.6)	107(10.4)	13(1.3)
5.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197(19.2)	302(29.4)	313(30.5)	189(18.4)	26(2.5)
6.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207(20.2)	356(34.7)	322(31.4)	127(12.4)	15(1.5)
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58(15.4)	281(27.4)	356(34.7)	201(19.6)	31(3.0)
8. 서울요양원		156(15.2)	314(30.6)	378(36.8)	157(15.3)	22(2.1)

앞으로 더 집중하길 바라는 사업으로는 압도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실질적 확대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1순위로 꼽은 사람들은 40.8%에 해당되었으며, 1, 2 순위를 합하면 51.6%에 달한다. 두 번째로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의 확대를 꼽았으며, 긴급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통합지원센터 신설을 서울시가 더 집중해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서울시가 향후 돌봄 정책 중 더 집중해 주길 바라는 사업



긴급 또는 일시 보육의 경우 단순한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예컨대, 아이가 “돌봄제공자”의 거리감을 좁히는 방안(특히 분리불안을 느끼는 시기의 아이나 낯가림이 있는 아이일수록)을 고려해야 한다. 긴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제공자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긴급보육 환경이 필요하다.

◎ 가족 돌봄 관련 통합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서울시가 앞으로 더 집중해 주길 바라는 사업 중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물어본 항목이 가족돌봄통합지원센터이다. 이것은 설문을 위한 명칭(명칭은 시행 시 변경 가능)으로 현재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서의 센터를 염두 한 것이다. 기존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원스톱지원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가족 대상별, 서비스별, 생애주기별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 돌봄 관련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 독일 베를린 ‘노인간병지원상담소’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상담소를 노인뿐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으로 포괄하는 ‘가족돌봄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좋은 사례이다.

사례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16%ED%98%B8%282009%EB%85%84%206%EC%9B%94%201%EC%9D%BC%29_0.pdf

독일 베를린 : 노인간병지원상담소

베를린시는 2009년 24곳에 노인간병지원상담소를 개소하였다. 각 지역구마다 2개씩 2011년까지 36개를 개소하기로 하고 시작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에게 상담 및 요청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를린시가 160만 유로(약 27억)를 지원하고 국가의료보험 및 요양보험공단이 나머지를 지원한다. 노인간병지원상담소는 교회나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며 제공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이다.

아래는 지역주민 특히 마을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한 일본 오사카시 사례이다.

사례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EC%A0%9C381%ED%98%B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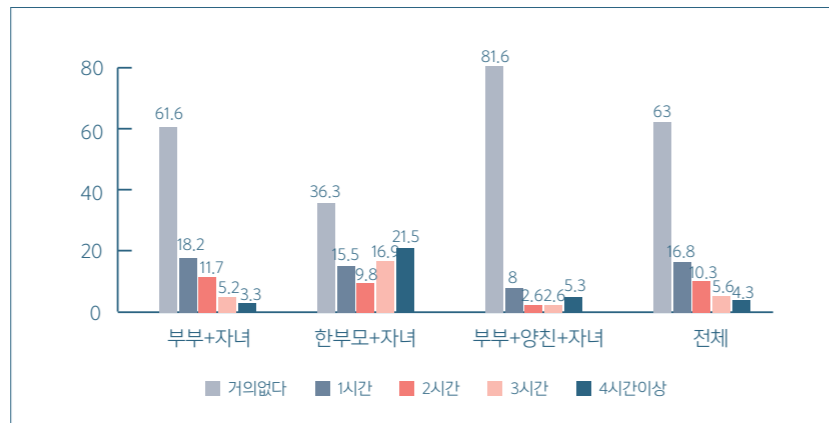
오사카시 : ‘스마트 에이징 시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와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오사카시는 지역 포괄 케어형 마을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에이징 시티’ 정책을 시작하였다. 오사카시는 고령자나 의료약자를 위한 ‘마을 카페’나 ‘마을양호실’등을 운영한다. 또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간호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고령자나 의료약자에게 제공한다.

가. 초등돌봄이 필요한 서울 가족

◎ 사회적 돌봄 부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거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동이 증가

초등학생 37%가 평균 한 시간 이상 홀로 지낸다. 특히 장시간(4시간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동은 한부모 자녀이다.



초등학생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일평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6 재인용, 여성가족부, 2016 2015 가족실태
http://kess.kedi.re.kr/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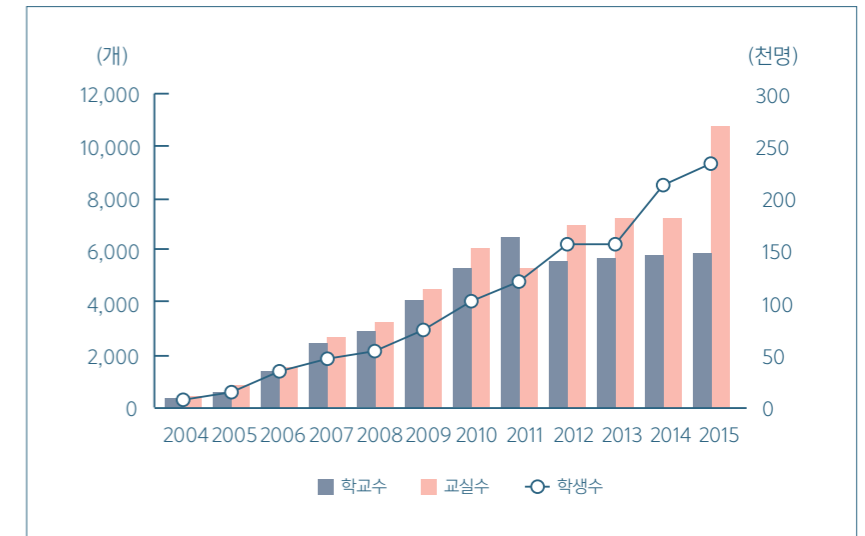
◎ 초등 방과 후, 초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증가하여 운영하는 학교와 참여 학생 수가 점점 증가

서울시 초등 돌봄 교실 이용의 경우, 2013년 참여율이 3.2%에서 2015년 7.6%로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초등 돌봄 교실이 기존에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에게만 제공되었는데 초 1~2학년 희망자 전원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에 확대한다고 발표하여 더욱 증가할 추세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이용률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서

초등돌봄교실 참여 규모 변화 (2004~201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6
http://kess.kedi.re.kr/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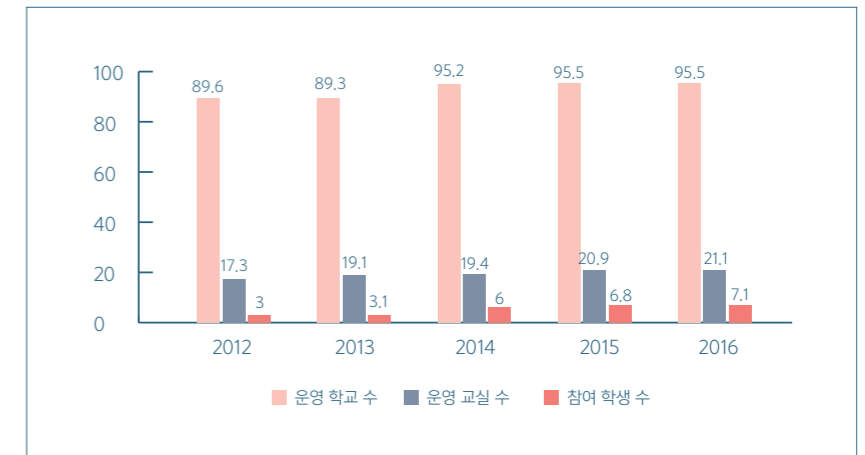
나. 취학 아동 돌봄을 책임지려는 서울

◎ 서울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황

서울시 돌봄교실 학교 수와 교실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참여학생 수는 2012년 3%에서 2016년 7%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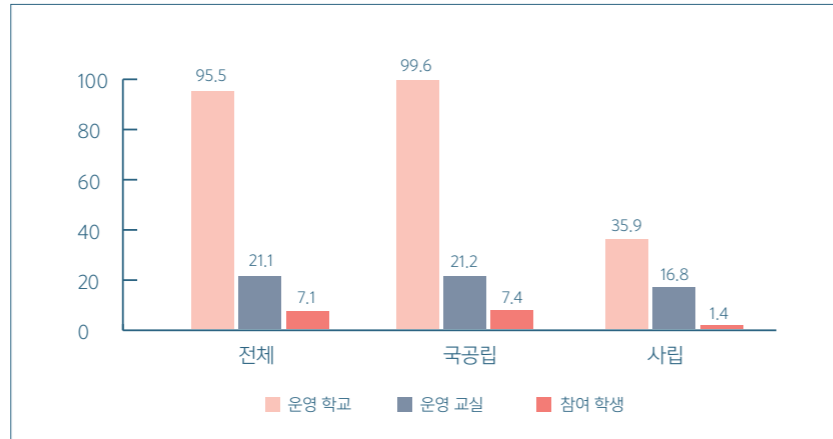
출처 통계로 보는 서울통계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오후돌봄은 95.5%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교실 수는 전체 21.1%이다. 국공립의 경우 99.6%가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35.9%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녁돌봄의 경우 전체 학교 중 63.6%만 운영하고 있다. 저녁돌봄의 경우 국공립은 66.6%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20.5%만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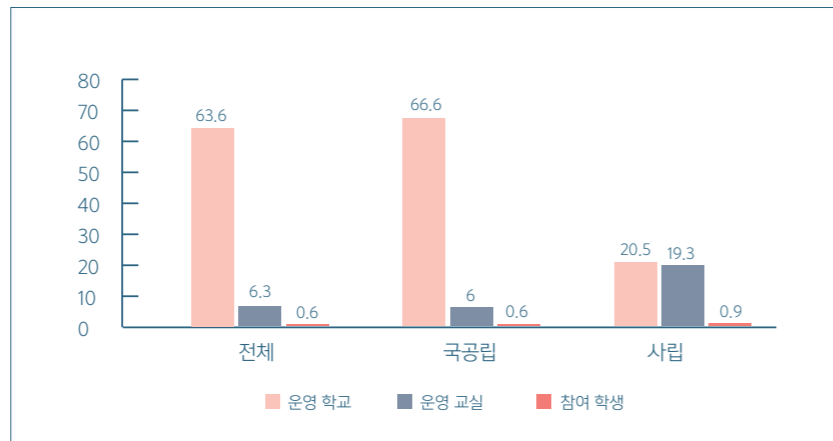
설립별 오후 및 저녁 초등돌봄 교실 운영 현황(2016년) / 오후 돌봄

출처
통계로 보는 서울통계, 2016, 서울교육청



설립별 오후 및 저녁 초등돌봄 교실 운영 현황(2016년) / 저녁 돌봄

출처
통계로 보는 서울통계, 2016, 서울교육청



돌봄 교실이 꾸준히 확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교실은 한 학교에 1~2개 교실에 불과하고 이용가능 학생도 대부분 초등학교 1~2학년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도 대부분 추첨을 통해 가능하다. 평소 평균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이 방학에는 12시 20분까지 단축 운영하여 일하는 부모들의 만족은 높지 않다(JTBC, 2017/8/16 <http://news.jtbc.joins.com/html/054/NB11508054.html>).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마을방과후학교 모델

◎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방과후학교” 조성

2016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치구와 MOU를 맺어 방과후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동시에 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39590>).

- ▷ **학교지원형** : 방과후학교에 자치구가 재정, 행정인력, 관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구로구).
- ▷ **마을공급형** :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되어 자치구의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고 학교에 안내해 필요한 학교에 공급해 주는 방식(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 **개별학교 맞춤형** : 개별학교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 ▷ **사회적 협동조합형** : 자치구가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굴·육성 하고 방과후학교를 협동조합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양천구)

예컨대, 구로구는 학교지원형 마을방과후학교 모델을 선택하였다. 이에 현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구로구 일대에 2017년 예산을 지원하여 동별 맞춤 방과 후 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같은 사랑방 기능을 활성화하고 세대통합을 위해 '마을어른 사랑방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은마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마을방과후 프로그램(1기) 수강생 모집

구로구청에서는 학교 밖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특별히 1기 시범기간(6. 12 ~ 9. 9) 동안에는 무료로 운영되오니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2017. 5. 22 ~ 선착순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 은마을교육지원센터(구로구청 신관2층) 방문 또는 유선접수
 수강기간 | 2017. 6. 12 ~ 2017. 9. 9 (총 12회, 보강주 포함, 1기 시범운영)
 수 강 료 | 무 료 (1기 시범운영기간에 한함)
 문 의 |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은마을교육지원센터 ☎ 860-3029, 2139

연번	분 야	프 로 그 램	운 영 시 간	운 영 장 소	수 강 대 상	정 원
1	학 령 / 교 과	마을로 수학하자, 「마을MATH」	목 14:00~16:00	수궁동주민센터 2층 다기능교실	초등 1~2학년	15명
2		파워업! 수학(1)	토 10:00~12:00	평생학습관 1강의실	중등 1학년	20명
3		파워업! 수학(2)	토 13:00~15:00	평생학습관 1강의실	중등 2학년	20명
4		파워업! 영어(1)	토 10:00~12:00	평생학습관 2강의실	중등 1학년	20명
5		파워업! 영어(2)	토 13:00~15:00	평생학습관 2강의실	중등 2학년	20명
6	창 의	21세기 연금술 「이루어제라, 3D!」	금 15:00~17:00	정보화교육장(구로구청 본관4층)	초등 4~6학년	20명
7		진로코칭수업 「진로나침반」	금 16:00~18:00	평생학습관 2강의실(구로구청 신관2층)	초등 6~중등 1	20명
8	문 화 / 예 술	사진찍는 만화가의 「남만사친교실」	월 14:00~16:00	공내아트도서관(구로시청내) 2층 대강당	초등 3~6학년	15명
9		행운교실 「네로안상상이야기」(1)	화 14:00~15:30	구로3동주민센터 3층 1강의실	초등 3~4학년	15명
10		행운교실 「네로안상상이야기」(2)	화 15:30~17:00	구로3동주민센터 3층 1강의실	초등 3~4학년	15명
11	창 의/예 술	창의융합교실 「복관+anything」	월 14:30~16:30	나우누리아트홀(공동소방서앞은면)	초등 3~4학년	20명
12		놀이 배우는 세시풍속 「놀이월령가」	목 15:00~17:00	구로3동주민센터 3층 1강의실	초등 3~4학년	15명
13	신 체 / 놀 이	놀이로 떠나는 세계 여행	수 14:00~16:00	구로초구립도서관	초등 1~4학년	15명
14		다같이 놀자, 동네한바퀴	화 14:00~15:30	구일초 앞 소공원	초등 1~4학년	15명

구로구

▣ 서울동행(동생행복도우미)프로젝트

서울시는 대학생 자원봉사들과 초등돌봄교실을 연계하는 서울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행 프로젝트에는 초등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신체놀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https://www.donghaeng.seoul.kr/>

I·SEOUL·U 서울특별시

동행 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두근거리는 만남,
설레는 경험,
함께 성장하는 동행프로젝트

함께해요!

동행

○ 신청기간 : 2017. 2. 20(월) ~ 2017. 4. 1(토)
○ 활동기간 : 2017. 3. 2(목) ~ 2017. 6. 24(토)
○ 활동기관 : 서울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그 외 교육현장(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신청대상 : 서울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대학(원)생 및 휴학생 (졸업생 불가)
○ 활동분야 : 교과목학습지도, 초등돌봄교실 등 7개 분야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donghaeng.seoul.kr/>)
○ 문의사항 : 전화(02-2274-7306~9), 홈페이지 Q&A 이용

○ 선 물

사회봉사 학점 연계(일부대학 제외)
일반봉사자 기업탐방 기회 제공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우수봉사자 해외봉사 및 해외연수 참가 기회 제공 (한 학기 40시간 이상 두 학기 이상 참여자) 서울시장 명의 활동인증서 발급 (한 학기 40시간 이상 참여자) 서울시장 표창 산발 기회 제공 (한 학기 40시간 이상 네 학기 이상 참여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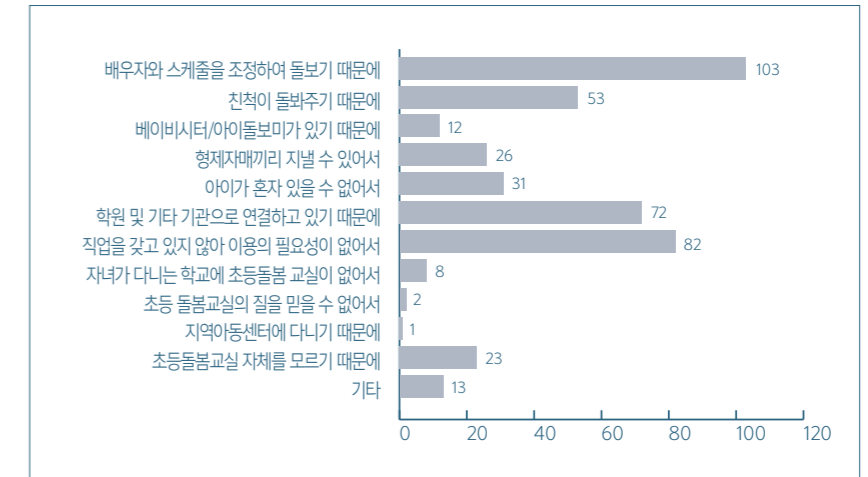
◎ 서울지역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425개소)와 방과후 아카데미(23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다. 서울시민의 초등돌봄교실 이용과 요구

2017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 427명 중 127명이 돌봄 교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자 중 초등 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복 응답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103명이 배우자와 스케줄을 조정하고, 72명이 학원이나 기타기관과 연결하고, 53명이 친척이 돌봐줘서, 31명이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어서, 26명이 형제자매와 지낼 수 있어서, 12명이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가 있어서 라고 답변하였다. 초등 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에 따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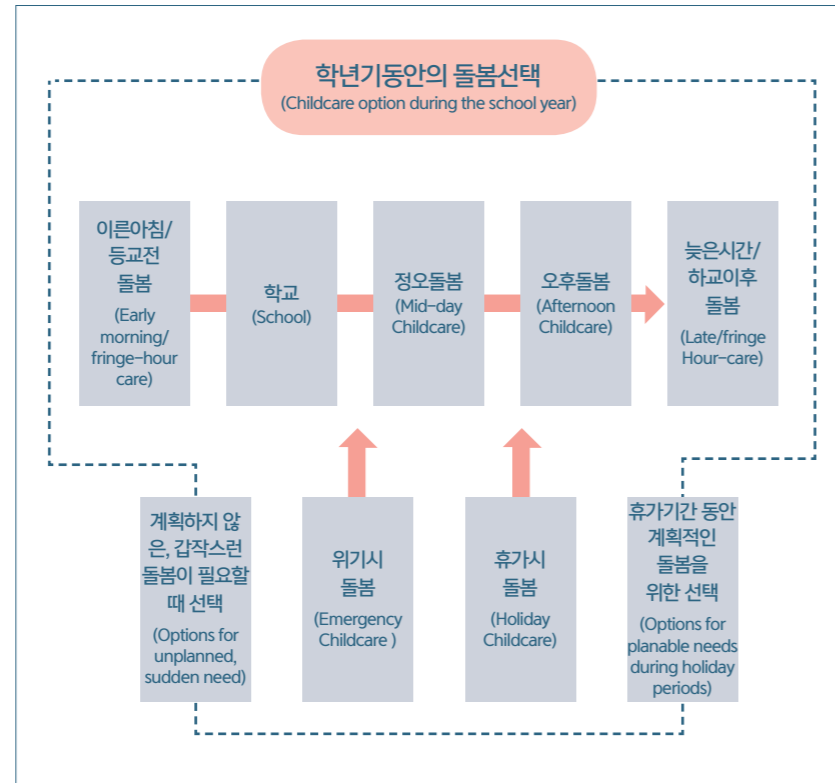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생애주기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 학제를 거친다. 학령기동안의 돌봄도 중요하데 특히 어린 학령기 시기인 방과 후 돌봄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방학, 휴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돌봄 자원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결망을 꼼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독일 가족부는 “학령기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가족들을 위한 지역 연합” 과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시작하였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한편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방과후, 틈새 시간, 위기 및 방학 시 프로젝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령기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안정적이고 틈새가 없는 돌봄의 중요성을 지자체와 회사에 알리는데 있다. 서베이를 통해

돌봄 선택의 공백을 파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자원을 연결하고자 한다. 방학이나 긴급한 상황에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돌봄 자원과 정보가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꼼꼼한 돌봄 체인을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연결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사례 : 베를린 돌봄 체인

출처
2012베를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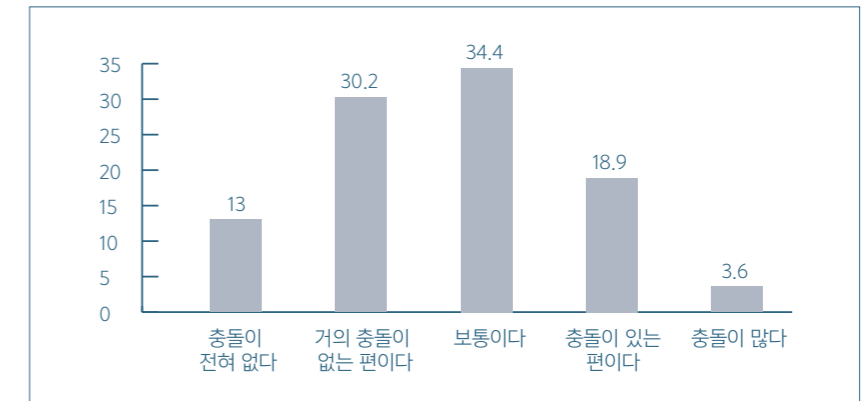
03

서울시민의 일과 돌봄 사이의 시간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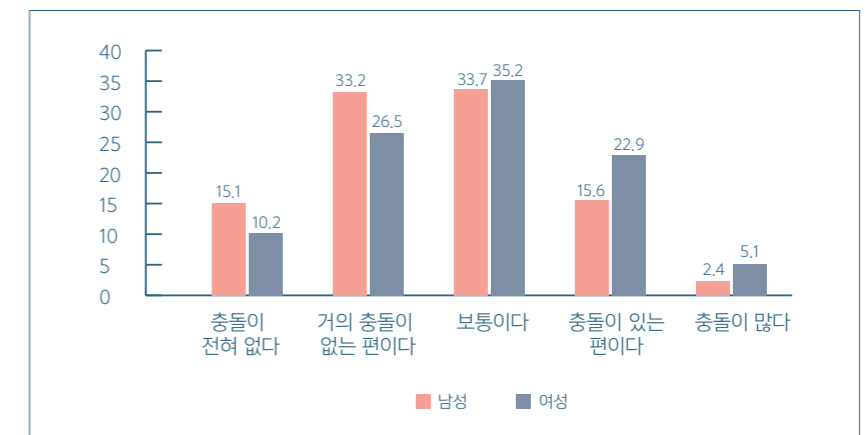
가. 부모로서 시민이 경험하는 자녀돌봄과의 시간충돌

2017년 일을 하고 있는 서울 시민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침 출근시간과 자녀들의 등원/등교시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정도를 조사한 결과 충돌이 보통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고, 충돌이 없는 편이다가 30.2%, 충돌이 있는 편이다가 18.9%, 충돌이 전혀 없다가 13%, 충돌이 많다가 3.6%였다. 성별로 보면, 충돌이 전혀 없다, 거의 충돌이 없는 편이라는 남성이 훨씬 많은 반면 충돌이 있는 편이다, 충돌이 많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출근시간과 자녀들의 등원/등교 시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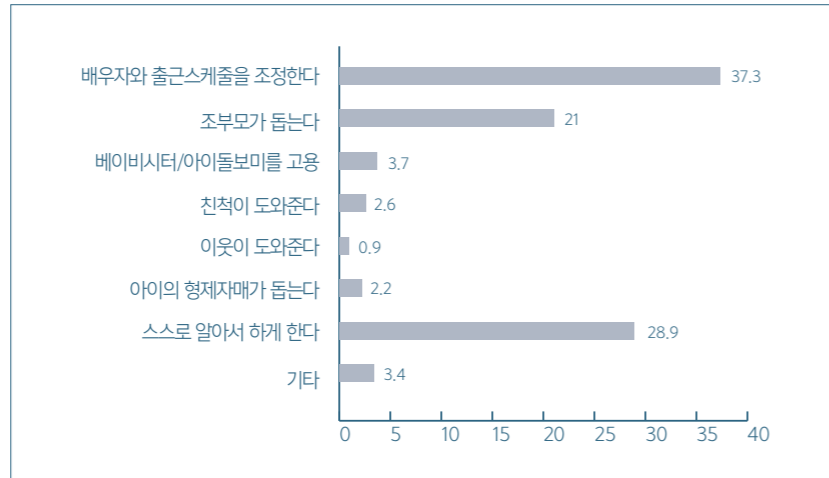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아침 출근시간과 자녀들의 등원/등교시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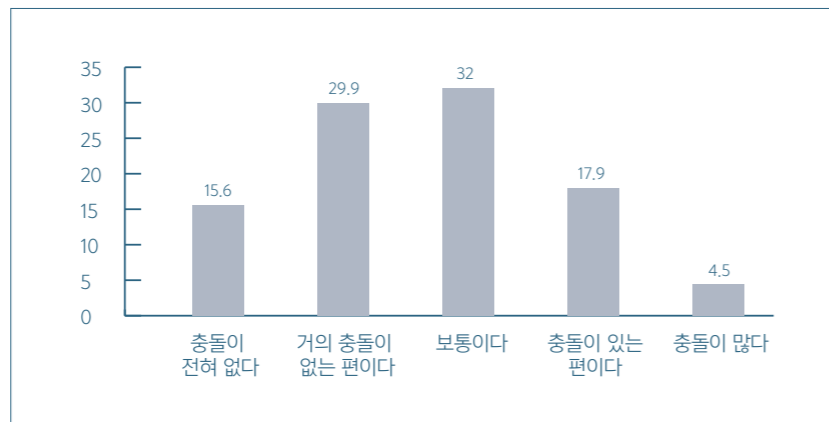
아침 출근 시 자녀들의 등원과 등교시간이 충돌할 때 해결방법으로 응답자의 37.3%가 배우자와 출근스케줄을 조정한다, 아이 스스로 하게 한다가 28.9%, 조부모가 돕는다가 21%를 차지했다. 요즘 조부모 돌봄이 확대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약 5명 중 1명은 조부모의 조력을 받고 있다.

아침출근과 자녀들의 등원/등교 시간 충돌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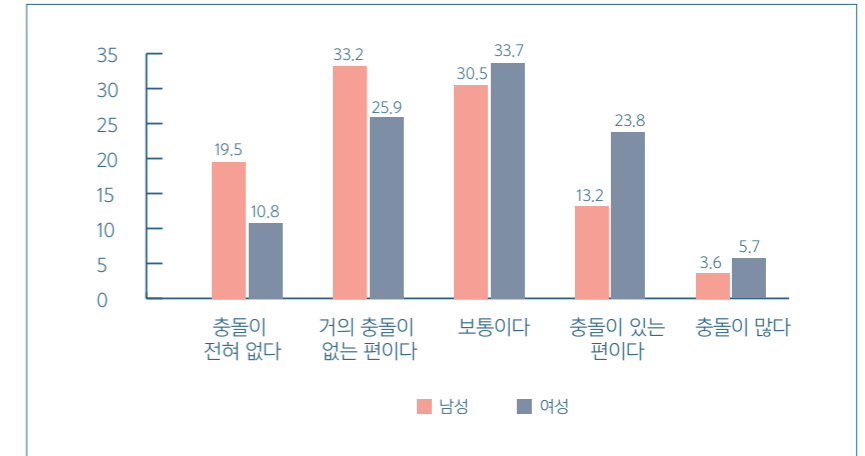


저녁 퇴근시간과 자녀들의 하원/하교시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정도를 조사한 결과 충돌이 보통인 경우가 32%로 가장 많고, 충돌이 없는 편이다가 29.9%, 충돌이 있는 편이다가 17.9%, 충돌이 전혀 없다가 15.6%, 충돌이 많다가 4.5%였다. 아침시간 충돌과 유사하게 저녁 퇴근 시간 역시 성별로 보면, 충돌이 전혀 없다, 거의 충돌이 없는 편이라는 남성이 훨씬 많은 반면 충돌이 있는 편이다, 충돌이 많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과 자녀들의 하원/하교 시간의 충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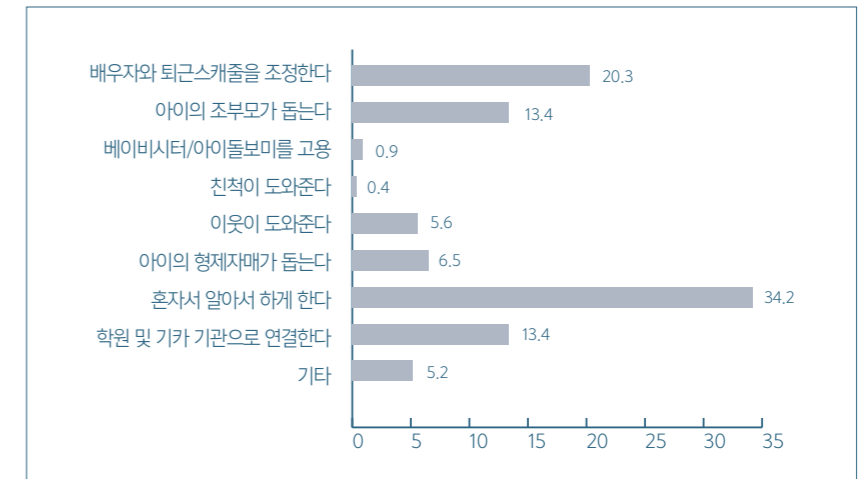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퇴근시간과 자녀들의 하원/하교 시간의 충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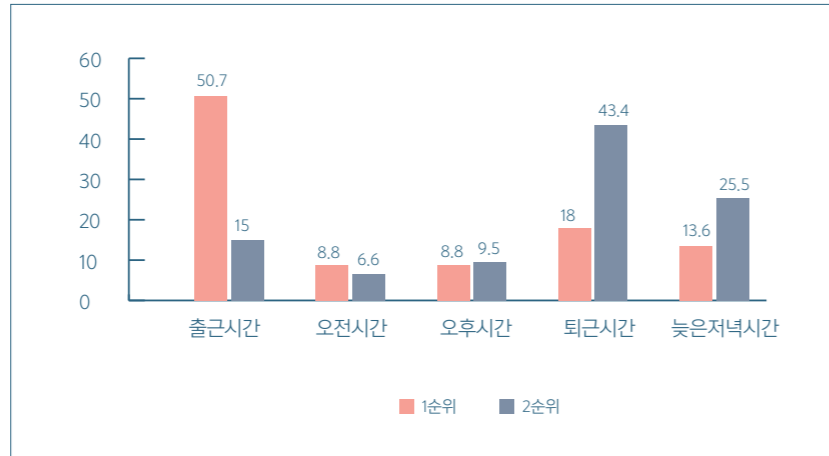
저녁 퇴근 시 자녀들의 하원과 하교시간이 충돌할 때 해결방법으로 응답자의 34.2%가 혼자서 알아서 있게 한다, 배우자와 퇴근스케줄을 조정한다가 20.3%, 조부모가 돕는 다와 학원 및 기타기관으로 연결한다가 똑같이 21%를 차지했다. 퇴근 시간에 아이 혼자서 알아서 있게 한다가 가장 높은 것은 오후에 나홀로 아동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당수 아이들이 학원 및 기타 기관으로 연결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관으로 이동하며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근 시간과 자녀의 하원/하교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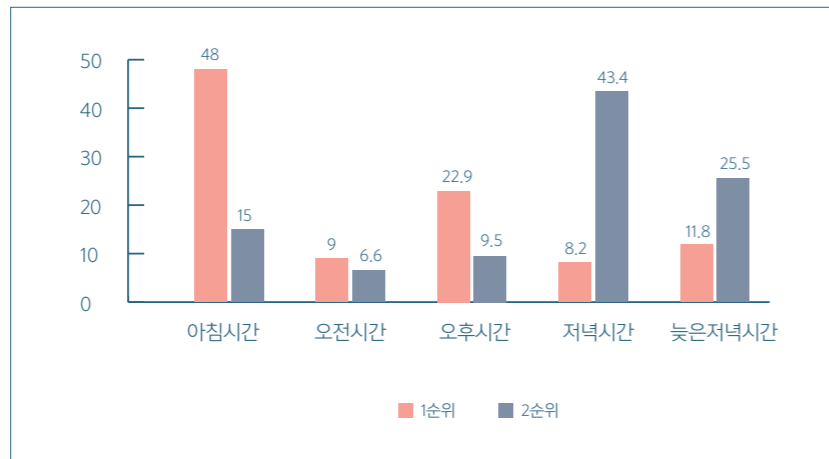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생활 중 가장 시간 충돌이 많은 시간 1순위로는 출근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퇴근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가장 시간 충돌이 많은 시간은 아침시간이 1순위, 오후시간이 2순위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서울시민의 시간충돌에 대한 욕구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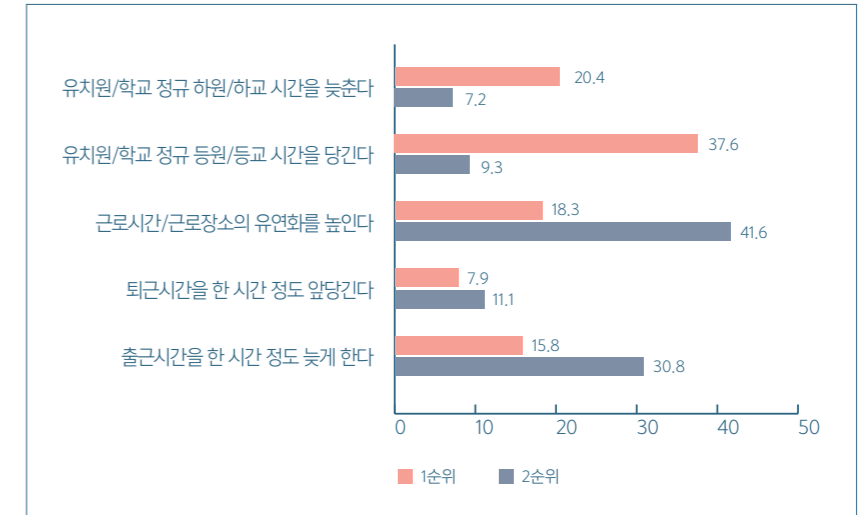
하루 생활 중 시간 충돌이 가장 많은 시간 :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하루 생활 중 시간 충돌이 가장 많은 시간 :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시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치



서울시민의 일과 자녀의 시간 충돌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근로 시간, 교통시간, 학교시간, 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시간 정책에 대한 욕구를 시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나. 서울시민의 시간충돌 해소를 위한 요구

서울시민들은 일과 자녀의 시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로 근로시간/근로 장소의 유연화를 41.6%, 출근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늦추는 것을 30.8%, 퇴근시간을 한 시간 정도 앞당기는 것을 11.1%가 응답하였다. 2순위로 퇴근시간을 한 시간 정도 앞당기는 것을 36.7%, 출근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늦추는 것을 20.4%, 근로시간/근로 장소의 유연화를 18.3%가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

2

일·쉼·삶이 있는 서울

01

생활시간 빈곤에서 벗어나기

서울 시민 여러분은 충분한 생활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긴 노동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됩니다. 또, 충분한 쉼과 여유를 가지기도 어렵고, 삶의 질은 낮아지게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려면, 충분한 쉼과 여유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가 가족의 생활시간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 바쁜 삶에 쫓기는 서울 가족

◎ 장시간 노동, 짧은 가족 돌봄 시간

서울시민의 노동시간은 길고, 돌봄시간은 매우 짧게 나타난다. 전국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08년 46시간에서 2014년 43.8시간으로 감소했지만, 서울시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4년 44.1시간으로 전국 평균(43.8시간) 보다 길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서울시 기혼자의 성별 가족 보살핌 시간을 보면, 남성 15분, 여성 48분으로, 노동시간에 비해 매우 짧게 나타난다.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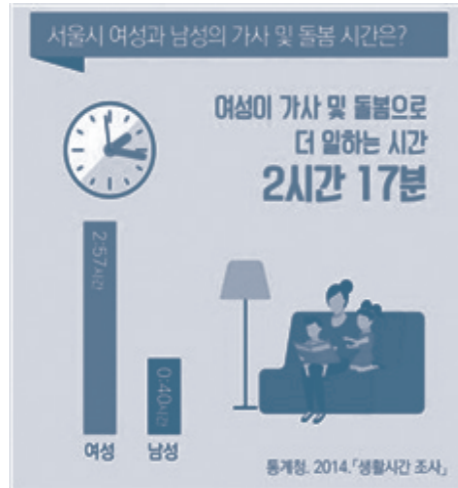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국	46.0	45.9	45.1	43.9	44.6	43.1	43.8
	남성	47.8	47.9	47.3	46.1	46.9	45.3	46.2
	여성	43.4	43.1	42.0	40.7	41.4	40.0	40.6
	서울시	46.0	46.4	45.4	44.2	44.6	43.2	44.1

서울시 기혼자의
성별 가족 보살핌 시간
(단위: 시간, 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표본수 (명)	미취학 아동 보살핌	취학 아동 보살핌	배우자 보살핌	부모 보살핌	기타 가족 보살핌	비동거 부모 보살핌	비동거 기타가족 보살핌	총시간
서울시	4,378	0:24	0:03	0:02	0:00	0:01	0:01	0:03	0:34
남성	1,940	0:12	0:01	0:01	0:00	0:00	0:00	0:01	0:15
여성	2,438	0:34	0:05	0:03	0:00	0:01	0:01	0:04	0:48
3040 남성	846	0:24	0:02	0:01	0:00	0:00	0:00	0:00	0:27

◎ 여성이 남성 보다 가사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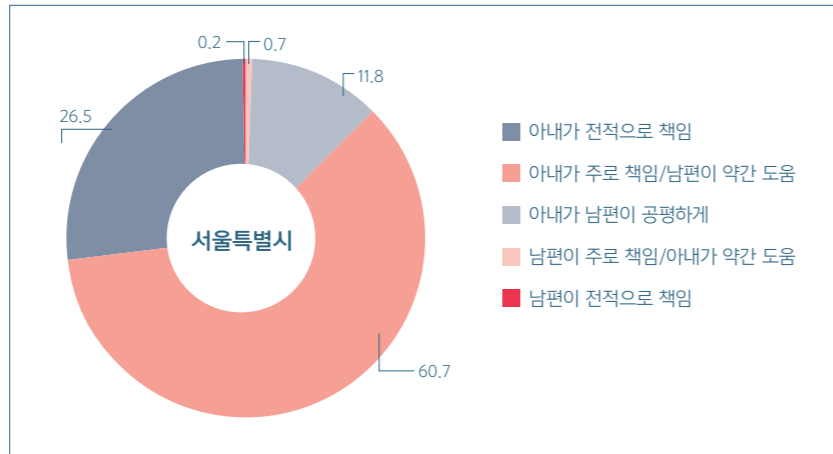


서울 여성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2시간 57분으로 남성(40분) 보다 하루 평균 2시간 17분 더 일하고 있다(「2015 성인지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성불평등한 가사분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사노동을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는 의견은 과반수 이상인 60.7%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응답은

26.5%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하다. 가사노동 부담은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 시키고,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큰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2017 서울서베이).

서울시 가사노동 부담정도 (단위 : %)

출처 2017 서울서베이



◎ 비용부담과 시간부족으로 인한 삶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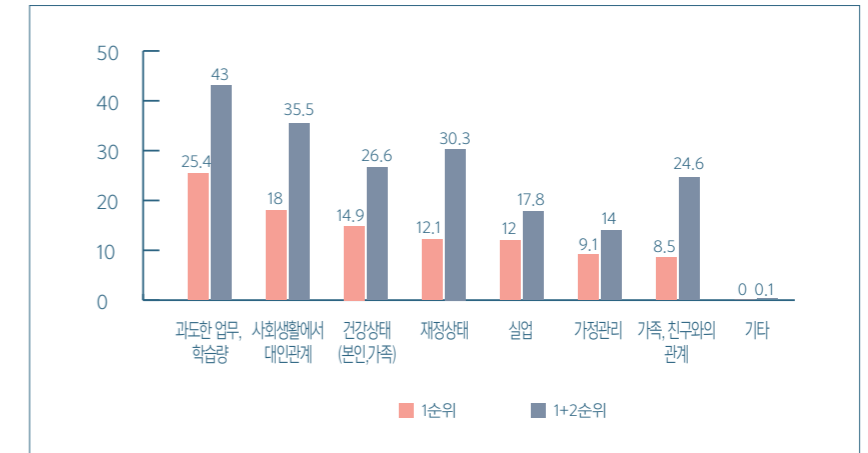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여가와 실제 여가활동은 불일치하고 있다.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야외 나들이'(52.0%)가 가장 높고, 'TV 또는 비디오 시청'(29.3%), '문화예술 관람'(25.5%), '휴식'(19.4%)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여가활동은 'TV 또는 비디오 시청'(78.0%)이 가장 높고, '휴식'(43.5%), '여행·야외나들이'(41.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28.3%)이 뒤 따른다. 서울시민은 문화활동을 관람(참석)하

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용부담(55.5%)'과 '시간부족(49.4%)'을 많이 꼽았다.

한편, 서울시민의 54.2%가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해 2015년(53.9%)보다 0.3%p 상승했다. 서울시민은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43.0%)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1+2순위 기준), 이 밖에도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35.5%)', '재정상태(30.3%)', '건강상태(26.6%)', '가족·친구와의 관계(24.6%)'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다(2017 서울서베이).

서울시민 주요 스트레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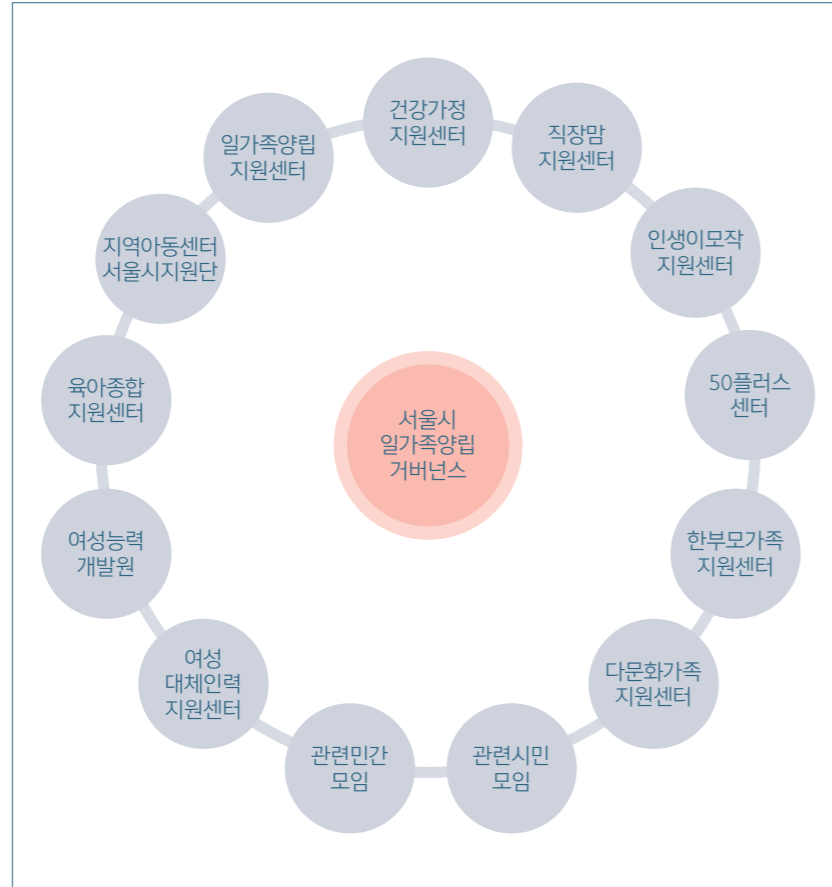
출처 2017 서울서베이



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 서울형 일·가족양립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는 전 연령에 걸쳐 모든 시민이 일·생활 균형을 누리도록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통합적인 일·가족양립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남성의 돌봄참여 지원

서울시는 생활시간 부족이나 관련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아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서울시 소재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의 직장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각 직장의 구성원 특성과 인원수를 고려한 맞춤형 아버지 교육이다. 2016년에는 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321개 기관의 9,920명의 아버지들이 참여했다.

좋은 아빠 프로젝트

서울시는 남성의 돌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7 좋은 아빠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빠육아교육과정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에게 전문강사를 파견해 무료로 육아교육 지원

찾아가는 1:1 맞춤형 - 아빠육아 교육과정

맞춤형 아빠육아강사 파견(2회 기준/무료)

* 날짜,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교육

- 내용 : 자녀의 행동특성, 자녀와의 대화법, 또래관계, 자녀의 부적응 행동, 자녀의 매체지도 등

- 대상 :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자녀를 둔 서울시민 아빠

- 교육시간 : 1가정 당 2회 지원

- 참여 자치구 : 강남구/강북구/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성북구

문화패키지 프로그램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공연 프로그램 지원(세종문화회관 연계)

부자유친 프로그램

아빠와 자녀 간 문화적 소통을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지원(아동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woman.seoul.go.kr/archives/1728>

2017 좋은 아빠 프로젝트

아빠육아 교육과정, 문화패키지 프로그램, 부자유친 프로그램 등 「서울시 2017 좋은 아빠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02)318-8169

◎ 부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서울시는 지역 내에서 양육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모색하는 부모 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2016년에는(4월부터 10월까지) 총 157개 모임에 모임별로 200만원 이내로 지원했다.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등의 분야를 지원하며, 부모 커뮤니티와 직장 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단체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특별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부모 커뮤니티를 활발히 지원한다. 2017년 4월 현재 모두 24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구로구의 '사월이아빠준비모임', 서초구 아버지/아이모임 '빠빠빠(PAPAPA)' 동작구의 부자 무예교실인 '비컴스트롱'이나 은평구의 발달장애아동 자녀통합을 위한 부모교육 '발달장애학부모모임' 등 포함해 다양한 요구를 가진 일하는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 신청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과 지역에서 일하는 부모가 스스로 만든 다양한 모임의 활동을 지원한다. 세 명 이상의 직장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page_id=17477



2016년 직장부모 커뮤니티 사례집

2016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page_id=17475&pageid=1&view=read&id=24066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 “8시간 쉬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즐기는” 888 캠페인

888 캠페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56년 'Eight Hour Day Movement'로 시작되

었다. 888 캠페인은 “8시간 쉬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즐기고”를 모토로 한다. 하루 24시간을 일·휴식·생활 균형 잡히게 보낼 수 있는 삶을 지향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서울 소재 기업(기관)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888 슬로건을 걸고, 하루 24 가운데 8시간은 일, 8시간은 휴식, 나머지 8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일에 할애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첫째, 주 40시간, 연간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초과근로 감축 및 미사용 연차소진을 도모한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 1인당 절대업무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신규인력 우선 채용이 필요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셋째,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정규직 정원 대비 약 13%의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축된 노동시간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생산성 3% 향상을 기대한다(서울시 내부자료).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2017년) 실시 후 확대 예정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계에는 초과근로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직 노동자 213명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275시간이다.

- 20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275시간에서 1,815시간으로 460시간 감축
- 2020년까지 4년간 총 27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증원

서울의료원 (간호사)

서울의료원 병동, 특수파트 간호사 451명 대상으로 2016년 연간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인당 2485시간 일하고 있다. 매주 월-토 8시간씩 일하는 셈이다.

- 20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485시간에서 1,888시간으로 597시간 감축
- 2020년까지 4년간 총 60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증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4대 지침

-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가기
- 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
- 정해진 휴게시간 당당하게 보장받기
-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효율 높이기

02

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가족양립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불안정한 고용지위나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환경 때문에 제도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똑같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 더 많이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기업 크기에 따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가족 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누구나 일·가족양립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일·가족양립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살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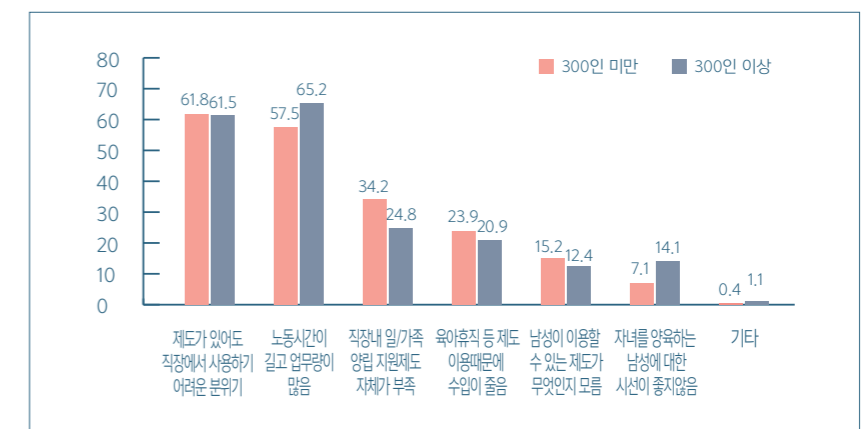
가. 제도는 있는데 이용은 어려운 서울 가족

◎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문화, 일·가족양립의 가장 큰 걸림돌

일·가족양립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었다.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다한 업무량이 높게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과 과다한 업무량은 300인 미만보다도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기업 규모별 일가족양립이 안 되는 이유 (단위 :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전문가 제안

과초과 성과 처벌제도

지나치게 많은 성과를 내는 직장인의 직속 상사나 소속 부서를 처벌하는 제도 도입이 제안되기도 한다. 지나친 성과주의와 경쟁주의는 일·생활의 균형을 어렵게 하고, 초과 성과는 주로 부서나 상사의 이해가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초과 성과 여부의 기준은 조직 내 평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할 수 있다.

◎ 여전히 낮은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구분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률)	육아휴직자 수			비율(b/a)
		전체(a)	남성	여성(b)	
2012년	2,194명(8.3%)	182명	19명	163명	89.60%
2013년	2,141명(9.3%)	200명	19명	181명	90.50%
2014년	2,064명(12.1%)	249명	22명	227명	91.20%
2015년	2,114명(12.1%)	255명	36명	219명	85.90%
2016년	2,076명(13.4%)	278명	32명	246명	88.50%

서울시 직원의 육아휴직자 수는 2012년 182명에서 2016년 278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전체 휴직자의 약 90%를 차지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개선이 필요하다.

◎ 서울시 유자녀 기혼여성의 절반이상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경험

서울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원인 1순위 중 '출산 또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51.3%)'가 가장 높고, '직장 내 분위기 또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14.0%를 차지한다. 또 '출산 후 휴직한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퇴직 후에 재취업이 어렵다'는 의견도 14.0%이다. 서울시 유자녀 기혼여성의 절반이상(53.0%)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고, 특히 비정규직 기혼여성(67.7%)이 정규직(55.5%) 보다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근로형태별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종류(단위: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P) 값을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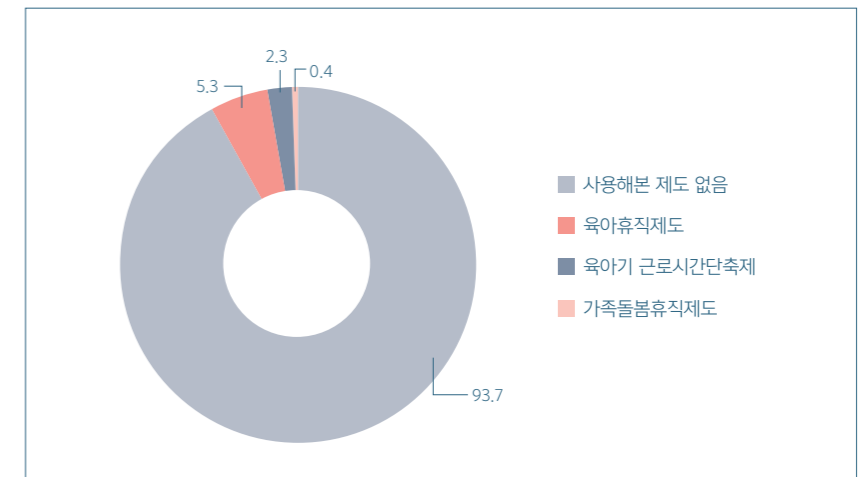
차별의 종류	전체 (265)	정규직 (141)	비정규직 (65)	비경제활동 (59)
남성 또는 임신·출산상태가 아닌 여성에 비해 낮은 임금	16.2	14.2	18.5	18.6
직장에서의 교육·훈련기회 박탈 및 제외	11.3	12.1	9.2	11.9
승진이나 승급, 고과평가에서의 차별	34.0	41.1	29.2	22.0
기존의 업무와 전혀 연관 없는 부서 또는 업무로 일방적 배치	9.4	12.8	7.7	3.4
직장 내 따돌림	4.5	5.7	1.5	5.1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권고 및 부당해고	24.2	14.2	32.3	39.0
기타	0.4	0.0	1.5	0.0
총합	100.0	100.0	100.0	100.0

◎ 한부모 가족을 위한 일·가족양립 제도 개선

서울시 한부모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 가구는 자녀돌봄과 경제활동 부담을 한 명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가족양립 제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시 일하는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그림과 같다. 한부모 10명 중 9명이(86.5%) 일·가정생활 병행으로 수면부족, 만성피로 등 건강문제를 겪는다. 76.6%가 몸이 아픈 날에도 휴가를 쓰기 어려워 직장에 나간다. 특히, 한부모 가족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한부모는 24.7%에 불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곳은 8.4%, 5.1%에 불과하다. 한부모가 된 이후에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험자는 5.3%에 불과하며, 출산·보육 관련 일·가족 양립제도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3.7%이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한부모 일·가족양립 지원제도 사용경험 (N=526 / 단위: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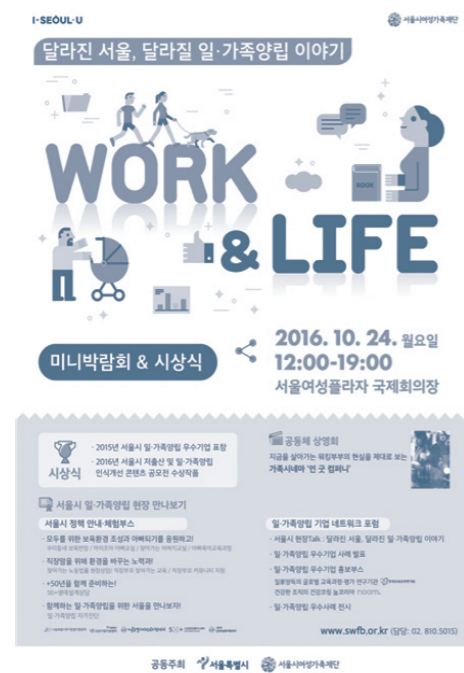


나. 제도의 실질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서울

◎ 서울형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의 민간 기업 확산

장시간 근로 조건 하에서 성불평등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며, 성불평등한 가사분담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육아휴직 사용도 쉽지 않을 경우, 가족과 시간을 공유하기 어려워지고, 효율적인 근로환경 조성도 어려워진다. 특히 민간부문의 일·가족양립 수준은 공공부문보다 여전히 낮다. 따라서, 서울시는 생애주기에 맞춘 서울형 일·가족양립 제도와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노력한다.

◎ 기업과 개인의 일·가족 양립 수준 진단 및 분석



서울시는 기업의 일·가족양립 직장문화를 진단하고,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돕는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또 홍보를 통해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일·가족양립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컨설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특별히 일·가족 양립에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6년 서울시는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337개 기업), 신규기업 대상 맞춤형 방문진단 및 컨설팅(20개 기업),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의 사후관리 진단과 컨설팅(18개 기업), 집단 교육을 통한 진단과 컨설팅(299개 기업)을 실시했다. 또,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시상과 박람회를 개최해(2016년 10월 24일) 우수기업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사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현장토크 등을 진행했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일·가족양립 수준 진단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회사와 개인의 일·가족양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수 있다.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usr/poll/poll_main_diagnosis.do?mnuCd=MNU_012&step=2

일·가족양립 컨설팅 신청

근로자의 일·가족 균형 지원에 관심 있는 서울시 소재 기업과 기관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를 직접 방문해 일·가족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와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usr/poll/poll_main_consulting.do?mnuCd=MNU_075&step=3

◎ 서울시, 일·생활 균형 근무문화를 공공영역에서 선도

서울시는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과 유연근무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2014년 14.4%, 2015년 19.8%, 2016년 2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밖에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9 to 5 제도 : 임신·출산 직원을 위한 1~2시간 모성보호·육아시간(2016년 기준 119명)
- 육아휴직 장려: 대체인력 확보 강화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2016년도 육아휴직자 247명 중 12.1%가 남성. 여성은 87.4%)
- 가정의 날 : 수요일에서 수·금요일로 확대 실시(직원참여를 통해 정시퇴근 응원방송, 소등 및 PC 전원 차단 등) 2016년도 만족도는 74%임.
- 대체인력뱅크 운영 : 출산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배치(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행정보조원 활용. 2016년 지원 실적은 164명)

(서울시 내부자료)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일·가족양립 법제도 및 정책 바로알기

일·가족양립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자세 한 법·제도와 정책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usr/support/legal.do?mnuCd=MNU_016&step=2

◎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양립 제도 이용 지원

직장맘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서울시는 직장맘 권리보호와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2016년 기준).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소 원스톱 종합지원**
 - 연간 2,500회 이상 직장맘 3고충에 대한 체계적 밀착 상담 실시
 - 상근 노무사의 상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발간
- **노동법률, 직장맘 핸드북 제작배포 등 예방 서비스 확대**
 - 직장맘 핸드북 개정판 제작 배포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제작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서비스 제공(다산콜 120-5번)**
 - 2016년 2월 25일 서비스 개시, 전용콜 상담 4,845건 (12월 31일 기준)
-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신규 개소(2016년 7월 20일) :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45**
 - 상담 수요 분산 및 접근성 확보
 - 2017년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정

전문가 제안

서울시 여성차별방지 전담부서 설치

- 서울시 기혼여성 절반 이상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 경험을 했으나, 현재 재직하는 사업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서나 회사 내규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일하는 유자녀 기혼여성 중 차별을 당할 경우 정상적으로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는 경우는 33.4%에 머문다. 차별을 당해도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여성이 66.6%에 달한다. 서울시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은 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와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활용해 임신, 출산 차별방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더욱 적극적인 차별방지를 위해서는 여성차별기업 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차별기업에 대한 실사 실시 및 DB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내 차별신고를 위한 서울시 핫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기혼여성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핫라인을 마련하고, 차별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서울시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서울시 법령제도 개선과제로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및 강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설문결과를 보면, 7일(34.3%), 7일 유급(32.2%)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2를 개정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5일(3일 유급)을 7일 유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한다.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등의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40%이지만 70%로 확대하고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건의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육아휴직 시 80만원밖에 받지 못해 생활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서울시 내부자료).

전문가 제안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의 달) 정책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부모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으로 다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육아휴직 권리조항에 한부모의 경우 2배의 기간 권리를 부여함
 - 맞벌이 가족의 경우,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 휴가·휴직 기간 부여
 -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 1명당 양부모 아동과 동일하게 2년의 휴가·휴직 기간 권리 부여
- 한부모 가족에게는 배우자 조건 없이 '아빠의 달'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한부모 가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초 6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지급(상한 200만원)

다.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

◎ 일가족양립 정책관련 서울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돌봄분야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난다. 일가족양립 정책과 관련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가정의 날' 정시퇴근 문화이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 정도는 '가정의 날' 정시 퇴근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대한 인지도도 다른 사업들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사업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지원	249(24.2)	433(42.2)	268(26.1)	73(7.1)	4(0.4)
2. 기업의 일가족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265(25.8)	430(41.9)	239(23.3)	84(8.2)	9(0.9)
3.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281(27.4)	375(36.5)	260(25.3)	96(9.3)	15(1.5)
4. 부자유친 골목답사 프로그램	362(35.2)	415(40.4)	187(18.2)	49(4.8)	14(1.4)
5. 일생활균형 인식개선을 위한 888 캠페인	348(33.9)	409(39.8)	193(18.8)	63(6.1)	14(1.4)
6. '가정의 날'정시 퇴근문화	159(15.5)	259(25.2)	333(32.4)	219(21.3)	57(5.6)

전문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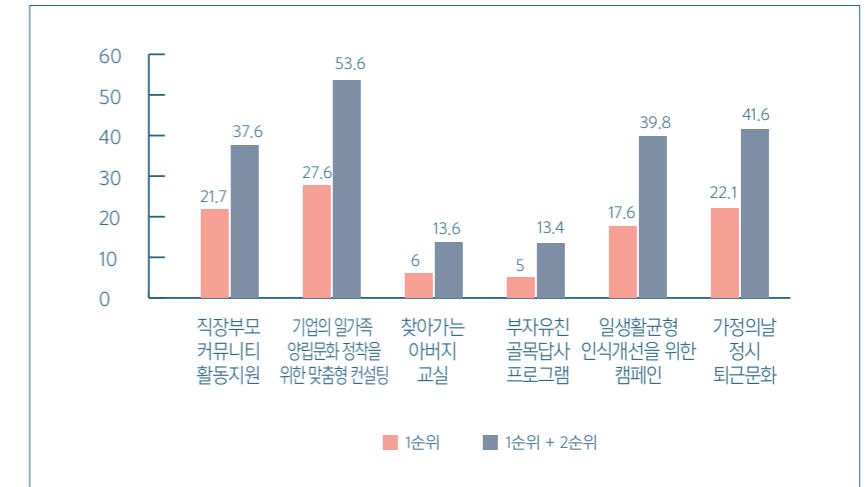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사업대상 확대·강화

서울시 기혼가구 안에서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사업 대상과 교육장소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내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현재 코치형 아버지 되거나 직장가정 갈등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성평등한 가구 내 역할분담이나 영유아 돌봄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할 수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 일·가족양립 정책 분야에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더 집중할 사업

앞으로 서울시가 일·가족양립 정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더 집중해주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응답은 분산되어 나타났다. 향후 더 집중해줄길 바라는 사업 1순위에는 기업의 일·가족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27.6%)이 제일 높고, '가정의 날' 정시 퇴근문화(22.1%),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지원(21.7%), 일·생활균형 인식개선을 위한 888 캠페인(17.6%) 등이 뒤를 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해 보면, 기업의 일·가족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53.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가정의 날' 정시 퇴근문화(41.6%), 일생활균형 인식개선을 위한 888캠페인(39.8%),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지원(37.6%) 등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향후 일·가족 양립정책 중 더 집중해줄길 바라는 사업



해외사례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No Housework Day 인식개선 캠페인

**national
NO HOUSEWORK DAY**

on april 7, we drop the brooms.

가사노동시간에서의 남녀 간 시간사용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혼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가 필요하다. 한 달에 특정 날을 기혼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아이 학교등교, 청소, 식사준비 등 모든 집안일을 남성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캠페인이다.

3

모든 시민이 적정한 생활을 누리는 서울

01

주거안심

안정된 주거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살만한 집을 필요로 합니다. 나 뿐 아니라 나의 가족 중 누군가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한다면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여성, 장년, 노년 1인 가구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는 모든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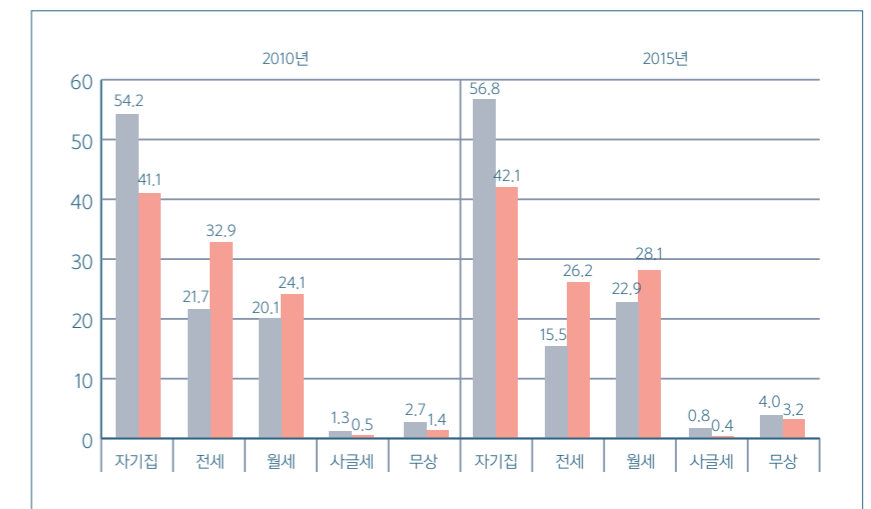
가. 주거문제로 불안한 서울 가족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월세 비율

서울시는 전국에서 자기집 비율이 42.1%로 가장 낮다. 전세(26.2%)와 월세(28.1%) 비율은 가장 높아 주거문제 안정성이 필요하다(2015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2010, 2015)
(단위 : %)

출처
2015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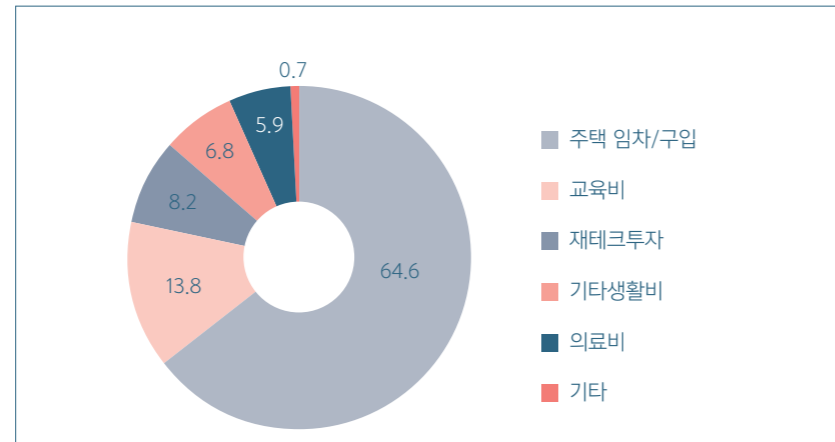


◎ ‘주택 임차 및 구입’으로 인한 높은 부채 부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부채율은 48.7%로 2015년(48.4%) 보다 0.3%p 상승했다. 2015년 대비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부채율이 2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며, 4인 및 5인 가구 부채비율은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소득 가구의 부채율이 41.4%, 500만 원 이상의 경우 50.5%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율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부채의 주요 원인은 ‘주택 임차 및 구입’(64.6%)으로 나타난다. 부채의 또 다른 원인은 교육비(13.8%), 재테크 투자(8.2%), 기타 생활비(6.8%), 의료비(5.9%) 등이다(2017 서울서베이).

서울시 가구 부채의 주된 이유
(단위 : %)

출처
2017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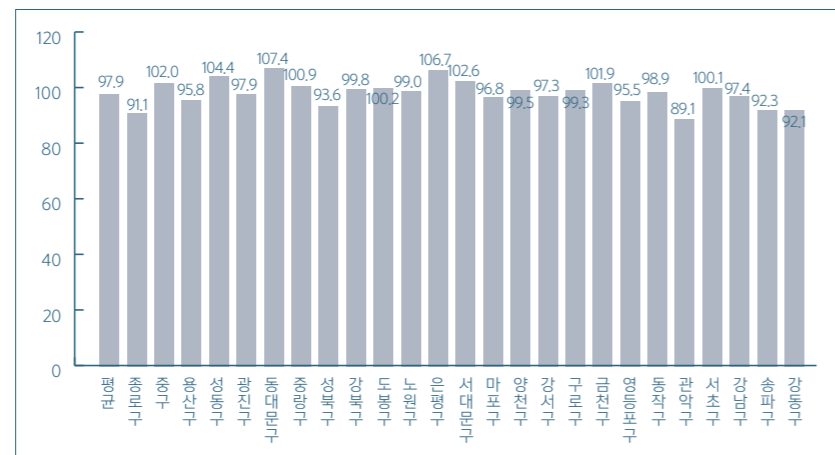


◎ 자치구별 불균형한 주택보급률

2014년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률은 평균 97.9%인데 반해 10개 자치구의 주택보급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서초구 등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곳도 있지만, 관악구(89.1%)와 갈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보급률
(2014) (단위 : %)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통계홈페이지(stat.seoul.go.kr)



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서울통계홈페이지(stat.seoul.go.kr)). 관악구 등에서는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주택보급률에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서울연구원, 2014).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1인 가구 가족정책 중요성 증가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정책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 현재 서울시에서 1인 가구는 전체의 29.5%(약 112만 가구)를 차지해 가장 주요한 가구유형이 되었다. 2000년 16.3%, 2005년 20.4%, 2010년 24.4%, 2015년 29.5%로 증가해오고 있다. 반면, 4인 가구 유형은 2000년 32.1%, 2005년 27.7%, 2010년 23.1%, 2015년 18.5%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1인가구 주거유형을 보면, 주로 단독주택에서 거주(52.1%)하며, 20세 미만에서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71.7%로 높다(2015 인구주택총조사).

◎ 취약한 여성 및 노인 1인 가구

1인 가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7%, 남성이 47.3%로 여성 가구가 절반을 넘어선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19세 이하(1.2%), 20대(22.3%), 30대(22.8%), 40대(15.3%), 50대(13.4%), 60세 이상(21.5%)으로 2,30대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도 높게 나타난다. 2030년에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특별히, 1인 가구 취업률 현황을 보면, 전체 취업률이 61.3%이고, 30대와 40대가 각각 83.7%, 77.6%로 높지만, 60대, 70세 이상은 각각 32.8%, 8.3%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다. 1인가구의 49.9%가 소득 1·2분위에 속해 월평균 소득이 93만원 미만이다(서울시 내부자료).

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

◎ 세대간 룸 셰어링, 세대 융합형 공공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서울시는 주거공간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연결해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원)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를 생활서비스(봉사활동)로 제공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년 5월말 현재 총 117호를 공급했으며, 자치구에서 사업 참여자를 매칭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1

실 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 등) 공사시행을 돕는다.

출처
http://have.seoul.go.kr/lcList.action?m=list&service_id=219&tr_code=snews)

여유 있는 룸 셰어링하는 '어르신과 학생'의 행복한 동거를 추천합니다!



광진구에 사는 A씨(71세)는 남편을 사별한 후 딸들마저 출가시켜 홀로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들이 쓰던 방 2개가 비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연결해준 룸 셰어링으로 지방 출신 대학생 B양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홀로 넓은 집에서 지내다보면 적적할 때가 많았는데 빈방에 여학생이 들어오니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여학생 역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안전한 주거 공간을 얻을 수 있어 안심입니다. 또 구청에서 임차인 학생이 입주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생활 수칙을 교육하고 협약을 통해 서로 지켜야 할 점을 조율하도록 중재 역할을 해 불편함을 최소화했지요.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만족하며 행복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한지붕세대공감 신청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택(방1개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은 홈페이지에서 한지붕세대공감을 신청할 수 있다.



http://www.peterpanz.com/house_share

◎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 희망 하우스

서울시의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희망하우스 신청

서울시 희망하우스 신청 대상 및 방법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 콜센터 1600-3456.



http://www.i-sh.co.kr/www/m_157/wpge/lease_wish_intro.do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본 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 까지 추진한다. 2017년 5월말 현재 청년주택 2개소 사업이 승인되었고, 총정로3가, 서교동, 논현동 등에 청년주택 공사를 착공했다(서울시 내부자료).

청년주거포털 사이트 구축

서울시는 청년 주거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청년주택 정책, 청년주거 부동산 정보, 임대차 거래 유의사항, 분쟁 등을 포함하는 청년주거 종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까지 청년 주거포털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7년 12월까지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여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여성이 낯선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25개 자치구에 160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6월 이후에는 19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안심지킴이집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해 여성 긴급 대피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1천 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심야 안전귀가 동행 및 취약지 순찰 사업이다. 각 자치구에서 스카우트를 선발한 후에 귀가지원을 신청할 때 2인 1조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목적지까지 동행한다. 2017년 말 추진 실적을 보면, 61,682건의 귀가지원과 42,873건의 취약지 순찰이 이루어졌다.

◎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감안해 매입형/건설형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맞춤형 주택을 계획해서 신청하면 입주유형, 모집일정 등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하우징은 매년 매입물량의 10% 이내에서 대학가 근처 주택을 위주로 대학생에 모집 공고 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서울시 내부자료).

유형	자치구	세대
공공원룸	강서, 송파, 강남, 동작	166
청년협동조합주택	서대문, 양천, 강서	125
홀몸어르신	금천, 은평	67
도전숙	성북, 성동, 강동, 은평	132
예술인주택	성북	11
연극인주택	성북	7
천왕여성안심	구로	96
희망하우징	서울시전역	1,215

주 : 공공원룸(1인청년근로자), 협동조합(1인청년), 도전숙(1인창조기업인), 희망하우징(대학생)

서울시 1인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현황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17년 5월말 기준)

◎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서울시는 새로운 주거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소통 기회를 가지면서 자발적인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017년 5월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상 주택별 활동내용은 [표]와 같다(서울시 내부자료).

대상 주택	활동내용
북가좌동 청년협동조합	- 협동조합주택공동체교육 - 매월 입주자 소통간담회
정릉희망하우징(대학생)	- 매월 입주자 소통간담
삼선동 연극인 주택	- 입주자 공동체 교육
정릉예술인주택	- 매월 입주자 소통간담회
독거어르신 보린주택	- 매월 입주자 소통간담회
공릉 공공기숙사 (대학생)	- 매월 입주자 소통간담회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17년 5월말 기준)

◎ 한부모 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서울시는 저소득인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한다.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며, 2년 이내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현재 강북구 수유동에 10채가 확보되어 있다.

◎ 전월세 시장 안정화

서울시는 전월세 수급불안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울형 임대차 선진제도를 운영한다. 서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전월세 서민의 틈새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 시행
- 서울 전월세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제도의 선도적 운영
- 지방 경제상황을 반영한 제도의 법제화 및 지방화 건의(서울시 내부자료)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으로 인해 임대차상당, 대출, 분쟁조정, 법적 구제절차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02) 2133-1200~1208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lInfo.do>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살만 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빈곤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녹록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방치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누구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생활안심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 생활이 불안정한 서울 가족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

서울시 가구 중 약 9.6%가 절대소득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가구원 수로 환산하면 인구 빈곤율은 8%이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먼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 가구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근로빈곤가구는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주로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상용직인 경우에도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총소득은 높지 않다. 아직 자녀교육비도 지출해야 하는 연령대가 많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급 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는 기초생활영역에서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가구 유형별 결핍 경험률 (단위: %)

출처
서울연구원, 2016
주1. 비해당을 제외한 유효파센트 기준임.

구분	난방 중단	집세 연체	공과금 연체	공교육비 미납	결식 감식	의료서비스 미이용	
전가구	9.2	5.8	9.7	1.0	1.7	2.4	
비빈곤 가구	8.0	5.1	9.0	0.8	1.5	1.5	
빈곤 가구	수급 가구	30.4	31.9	38.8	0.0	26.8	13.1
	비수급 빈곤가구	19.0	12.8	22.9	1.7	2.9	22.1
	차상위 가구	19.6	10.0	10.7	5.6	0.0	7.2
	근로 빈곤가구	20.0	14.6	25.0	4.8	5.6	16.0
	비근로 빈곤가구	20.6	13.6	10.7	3.4	2.2	3.9

◎ 생활이 불안정한 청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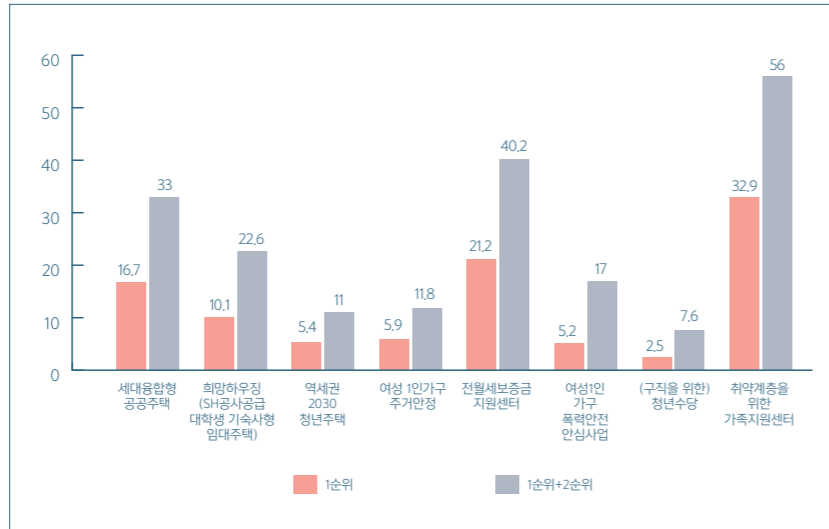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서울연구원, 2016)에서 15-29세 청년 가구원 중 11.8%가 청년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다. NEET는 의무교육을 마친 뒤, 진학, 취직, 직업훈련 등 어떤 형태의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한다. 서울연구원은 11.8%의 NEET 청년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불안정하고 일시적 취업상태에 있는 6.3%의 구직 NEET와 나머지 5.5%의 비구직 NEET로 나눈다. 구직 NEET 청년 중 실업자는 18.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어느 형태로든 일은 하지만 근로 형태가 임시직 57.5%, 일용직 21.9%로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결국, 15-29세 청년 중 60%가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 등의 비경제활동 인구이고, 청년층의 28.2%만 안정적인 고용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 NEET의 활동상태

출처
서울연구원, 2016

구분	비율	구직 NEET	비구직 NEET	구분	비율
임시직 임금근로자	57.5%	구직 NEET 53.7%	비구직 NEET 46.3%	취업준비	29.8%
일용직 임금근로자	21.9%			진학준비	18.2%
무급가족종사자	2.2%			가사·양육	41.6%
실업자	18.4%			구직포기	3.3%
				근로무능력	1.0%
			기타	6.1%	

서울시가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중 더 집중해줄길 바라는 사업



전문가 제안

취약계층 가구 대상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가구 대상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나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의료지원 서비스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가구의 안정성을 회복할 때까지 혹은 회복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포함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상담서비스나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전담자 배치를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

03

위기지원

가족이 살다보면 한번쯤은 누구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해주면 위기는 지나가는 건널목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한 가족은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빈곤으로 빠져 들거나, 폭력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서울시가 제공하니 위기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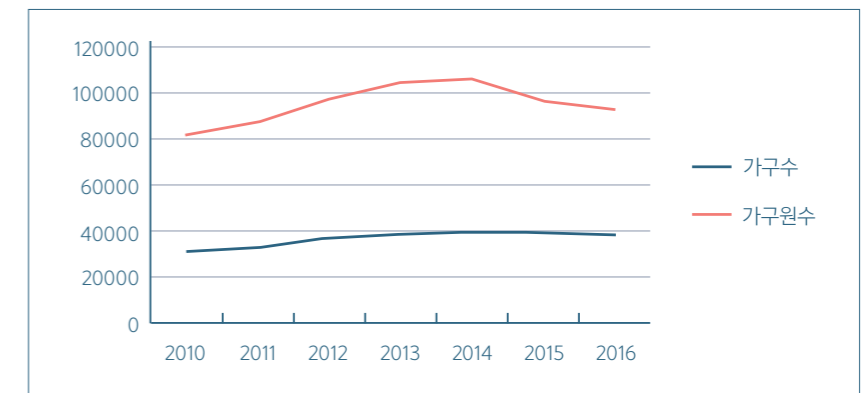
가. 살면서 한번쯤 위기를 경험하는 서울 가족

◎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는 가족의 증가

가족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예컨대, 양부모 가족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전환 할 때,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룰 때, 결혼 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을 해야 할 때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환(transition)에 직면하는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 가구수와 가구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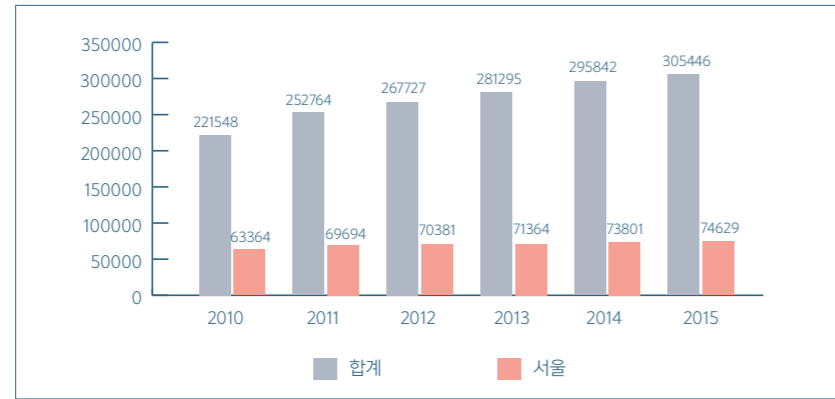
출처
서울통계정보시스템, 저소득 한부모가족.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7100.jsp?re_stc_cd=437&re_lang=kor



한부모 가구원 수를 보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한부모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은평구 순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순이다(서울통계정보시스템, 2015).

◎ 국적이 다른 성인이 만나 결혼하는 비율도 증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미국 출신 순으로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귀화 한 국적을 보면, 중국, 베트남, 대만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가족 통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9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3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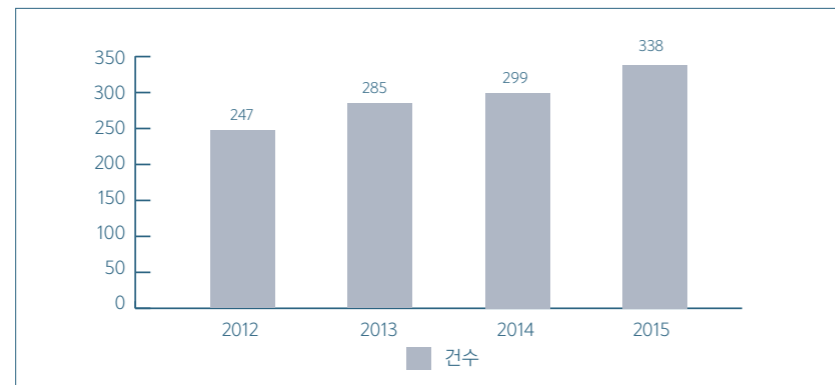
◎ 미혼모 주거 공간은 여전히 부족

미혼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9곳, 미혼모자시설은 6곳이다. 신생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 1인 가구의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도 증가

서울시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27%이다. 1985년 약 7%에 비해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약 4배 증가하였다. 1인가구 증가는 고독사 증가와 맞물려 있다. 고독사는 20~30대 청년, 40~60대 장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고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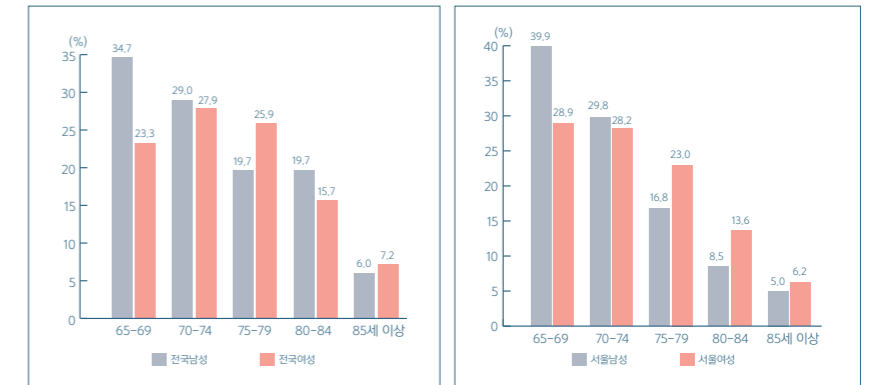


서울 시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출처
서울경제 '서울 저소득 독거 노인에 '안심폰' 지급...고독사 막는다', 2016/08/04.
<http://www.sedaily.com/NewsView/1L00ES4YVW>

전국 고령 1인가구 연령분포(좌) 서울시 고령 1인가구 연령분포(우)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서울시 고령1인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고령 1인가구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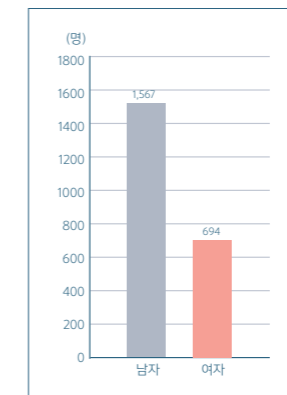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남성 독거노인의 비율보다 높다. 특히 고령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75세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가구 비율이 높다.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014년 기준 서울 자살은 2,500여명,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랑구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이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24.7명 연령별로 45-64세가 가장 높다. 비율을 봤을 때 65세 이상이 10만 명당 50.3명으로 가장 많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두 배 이상이다.

서울시 성별 자살 사망자 수 현황

출처
서울통계정보시스템, 자살률(구별), 2016년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DS7100.jsp?re_stc_cd=10622&re_lang=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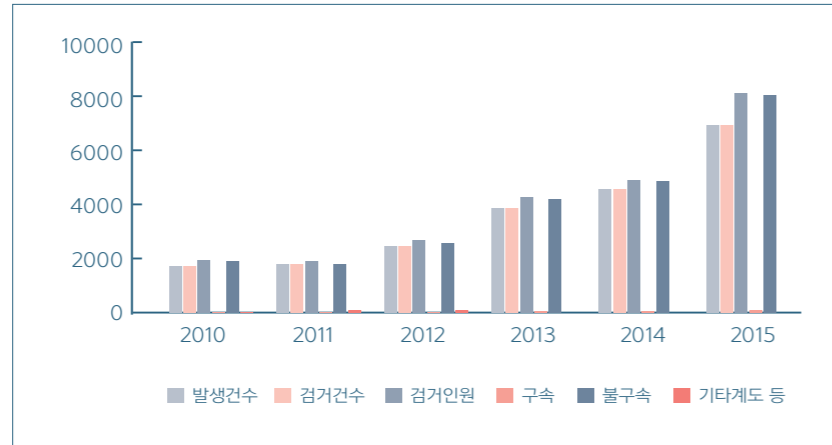


◎ 가정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서울시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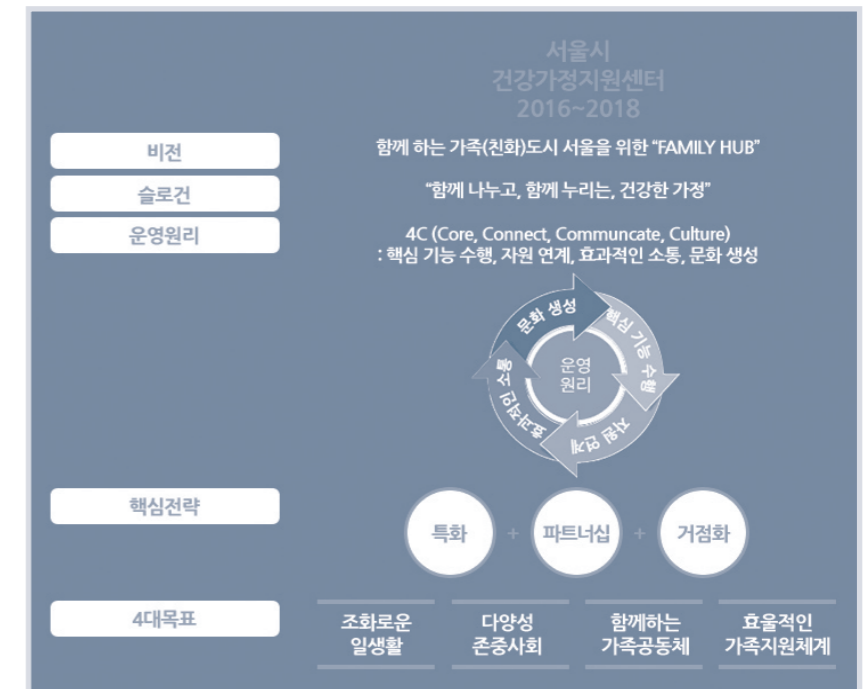
가정폭력 발생현황

출처
서울통계, 2016.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7100.jsp?re_stc_cd=75&re_lang=kor



출처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http://family.seoul.go.kr/business/business00.html>

가족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이혼전후 상담과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상담 및 사후 교육·상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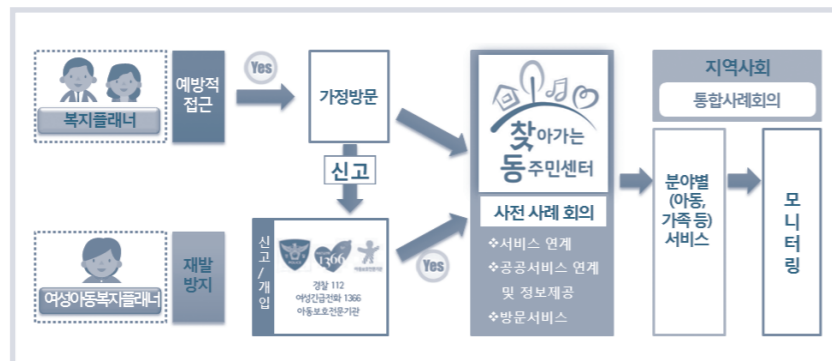


나. 가족의 위기 해결을 지원하는 서울

◎ 예방적 차원의 위기 가구 지원

여성·아동 복지 플래너는 2016년 동작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였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중에서 폭력학대방임 등의 문제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여성·아동·가족 영역 복지플래너이다. 위기가구와 예방적접근 가구를 구분하여 지원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폭력·학대·방임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 대상별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하는 가족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 아래 자치구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돌봄나눔,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교육, 지역사회연계, 가족상담,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자립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증진, 주거지원, 학습지원,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상담 등을 제공한다.

직장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강화
직장 한부모를 위한 야간 상담(18:00이후), 주말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전화 02-861-3020)

2015년도 야간상담은 18개소, 주말상담 7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 2015).

· 나너우리가족센터

미혼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미혼한부모가족의 위기임신, 자립, 아동양육,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성평등·인권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상담, 홍보 및 자원 연계,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외에 다문화 관련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에서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운영.
-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 지정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지원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울특별시, 2015).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
 - '한울타리 쉼터'에서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주민 인권상담 전담창구(글로벌센터 내) 운영.
 - 「한울타리」: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한 공간을 운영.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

이혼·재혼·조손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자살예방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위기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지원과 유족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담은 1577-0199.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가족학교 블로그,
<http://seoulfamilyc.blog.me/220782316308>

◎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교육과 상담을 확대

가족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가족학교는 생애주기별 교실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으로는 예비부부교실, 패밀리 셰프,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중장년기 가족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있다. 또한 10대를 위한 예비부모 교실이 있다.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가족학교”, 상담, 교육, 캠페인을 통해 가족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1자치구 1가족학교 연차별 확대 계획

10개(2015년)→15개(2016년)→20개(2017년)→25개(2018년)

잠깐!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서울가족학교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패밀리서울에서 프로그램 공고를 보고 참여 할 수 있다.

<http://familyseoul.or.kr>

·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실시

준비된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아바교육 교육과정” 실시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자녀를 둔 서울시민 아빠를 대상으로 아바교육강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



· 갈등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가족상담'을 실시.
-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
- 부모교육 의무화 조성 및 '온라인 상담' 개설(서울특별시, 2015).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지원 강화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지원을 강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환(transition) 시기에 직면하는 위기 가정에 대해 취약계층 특히 대상별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향후 취약한 가족에 대한 사후 서비스보다는 취약해지는 상황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서울시민의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서울시에서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1인가구(1인 청년가구, 1인 여성가구,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점수는 높지 않았다. 향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보인다.

구분	평가					
	매우 못 한다	잘 못 한다	보통임	잘 한다	매우 잘 한다	잘 모름
1. 한부모 가족	21(2.0)	145(14.1)	521(50.7)	245(23.9)	56(5.5)	39(3.8)
2. 미혼모 가족	44(4.3)	246(24.0)	462(45.0)	196(19.1)	38(3.7)	41(4.0)
3. 다문화 가족	23(2.2)	139(13.5)	414(40.3)	340(33.1)	78(7.6)	33(3.2)
4. 장애인 가족	46(4.5)	241(23.5)	450(43.8)	203(19.8)	44(4.3)	43(4.2)
5. 1인 청년가구	35(3.4)	239(23.3)	540(52.6)	133(13.0)	26(2.5)	54(5.3)
6. 1인 여성가구	40(3.9)	255(24.8)	539(52.5)	111(10.8)	27(2.6)	55(5.4)
7. 1인 노인가구	63(6.1)	283(27.6)	456(44.4)	141(13.7)	36(3.5)	48(4.7)

◎ 가족의 위기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전환(transition) 시기에 어느 가구나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 주거,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른 역할, 자신과 아이들(피부양자)에 대한 돌봄이 안

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기 전과 직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면 가족의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 지원 사례는 영국 버밍엄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364%ED%98%B8.pdf

영국 버밍엄 : 사회적약자 종합지원 정책 실행

영국 버밍엄시에서는 2003년부터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을 실행하였다.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주거 및 가정문제는 조기에 도움을 제공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또한 지원정책의 전 과정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계획하고, 실행하고,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영국 버밍엄시처럼 서울시도 위기가족에 대한 대응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수혜 가족 욕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한부모 가족의 욕구에 기초한 프랑스 '한부모 가정 독립거주 지원' 사례이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364%ED%98%B8.pdf

프랑스 파리 : '한부모 가정 독립거주 지원' 모성센터

2015년 파리는 파리 19구에 '세잠' 모성센터를 개설하였다. 파리지 가구 중 28%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다. 이 센터의 입주 대상은 7개월 이상의 젊은 임산부, 3세 미만의 아동과 엄마들이다. 센터에 입주하지 않고 독립된 30여채 아파트에 따로 거주할 수 있다.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공동 수유공간과 전문가들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래는 외국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사례이다. 자살 및 동반자살이 많은 한국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살 예방을 위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장기적인 정책 차원의 사례와 일본 교토처럼 '자살예방주간'에 맞추어 시민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또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예)한국1인 가구 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와 같은 활동 지원도 필요하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EC%A0%9C392%ED%98%B8.pdf

호주 빅토리아주 : '정신건강 10개년 계획'

호주에서는 2015년 '정신건강 10개년 계획'에서 자살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에는 회복탄력성 구축, 취약계층 지원, 자살행위자 보호, 최적의 개입방법 연구 개발, 자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지원이 있다. 회복탄력성 구축에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 과목을 신설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내 성소수자의 수용성 향상을 '안전한 학교 연대'와 협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25%ED%98%B8%282009%EB%85%8410%EC%9B%9419%EC%9D%BC%29_0.pdf

일본 도쿄 : 자살방지 네트워크

일본 도쿄부 자살방지대책 시범지구로 지정된 아다치구는 2009년 변호사회, 기타센주 법률상담센터, 일본의 고용지원센터 등 구내 24개 기관과 제휴해 '마음과 생명의 상담 지원 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아다치구는 2년간 자살건수가 부 전체의 18%를 넘어 심각하였다. 아다치구는 2008년부터 구청 창구직원뿐 아니라 구민과 대면할 기회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과 등의 창구직원에게 게이트 키퍼 연수를 실시 전 직원의 10%인 약 400명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구내 사회복지협의회, 근로기준 감독기관, 경찰서, 소방서, 민간 병원 등은 네트워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게이트 키퍼 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 강화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 하고, 가족간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외국 사례들을 볼 때 가족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가족문화 생활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EC%84%B8%EA%B3%84%EB%8F%84%EC%8B%9C%EB%8F%99%ED%96%A5%20373%ED%98%B8%28%EC%88%98%EC%A0%95%29.pdf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고교 교육과정에 가정폭력 예방 교육 포함 의무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16년 1학기부터 7~10학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재는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정폭력 예방 교재'를 통해 학교와 담당교사들이 교실에서 실시한다.

4

서울가족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서울

우리는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정보는 넘쳐나지만, 막상 가족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적합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우리가족에게 꼭 맞는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가족과 관련해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 가족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가 필요한 서울 가족

◎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 가족

서울 시민의 가족과 관련된 위험은 10점 만점에 6.10점으로 2015년(6.0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험도를 항목별로 보면, '무자녀 또는 저출산'(6.81점), '노인의 고립과 자살'(6.67점), '이혼'(6.56점), '개인주의적 경향'(6.27), '부모의 가정교육 역할 감소'(5.87), '가족의 상부상조 기능 감소'(5.62점),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5.62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5.39점) 순으로 나타난다(2017 서울서베이).

◎ 서울시 가족지원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필요

2015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욕구 수요조사에서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를 보면, 센터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센터 이용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높게 나왔고, '낮은 접근성'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특별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교육 시간이 잘 맞지 않음'은 2013년 조사에서도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용자 가족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다양한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센터 접근성 및 공간 확보', '다양한 교육시간 마련', '센터 홍보 강화', '맞춤식 서비스 제공'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조사는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 향상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5).

나. 쉽고 편리한 가족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 전국 최초로 서울시만의 가족포털 패밀리 사이트 런칭

서울시는 2016년 말부터 시민들이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패밀리 사이트(<http://www.seoulfamily.or.kr>)를 새롭게 런칭해서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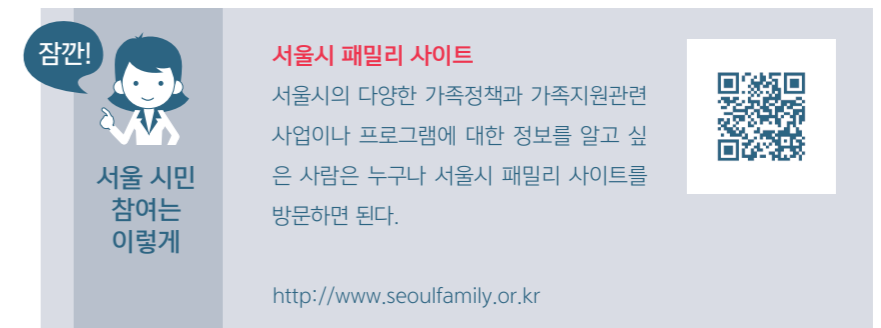
◎ 서울시 가족지원 정책·사업의 중심 허브

서울시는 패밀리 서울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관련 각종 정책 사업을 안내하고, 기관들 간의 연결망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의 업무를 소개하고, 연결망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패밀리 사이트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신청과 교육 동영상은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 패밀리 사이트는 맞춤형 상담 등의 시민 소통 공간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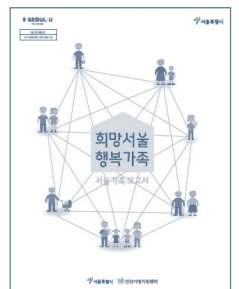
◎ 정보 허브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는 향후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가족 관련 신규 콘텐츠 업로드를 추가로 하고, 가족학교 관련 온라인 신청이나 가족상담 안내, 가족 서비스 이용 후기 작성 등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시민소통의 플랫폼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 서울 시민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각종 문화정보를 소개하는 등의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만의 「서울가족 보고서」 발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가족 보고서」를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가족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가족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서울시의 변화하는 가족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잠깐!  **서울가족 보고서**

2016년에 발간된 「서울가족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http://familyseoul.or.kr/node/3745>



서울 시민 참여는 이렇게

다. 서울시민의 가족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추가요구사항

◎ 서울시 가족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

서울시의 여러 가족서비스 기관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를 보면, 약 절반 정도의 서울시민이 각 기관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기관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왔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으로 나왔다. 그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가 뒤를 이었고, 일가족양립지원센터, 50플러스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6년 말부터 새롭게 런칭한 패밀리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보통이거나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약 30%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패밀리 사이트 서비스가 새로 시작하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가족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서울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관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건강가정지원센터	153(14.9)	383(37.3)	338(32.9)	133(13.0)	20(1.9)
2. 직장맘지원센터	181(17.6)	380(37.0)	314(30.6)	141(13.7)	11(1.1)
3. 50플러스 센터	277(27.0)	411(40.0)	229(22.3)	95(9.3)	15(1.5)
4. 여성능력개발원	81(7.9)	231(22.5)	371(36.1)	299(29.1)	45(4.4)
5. 일가족양립지원센터	219(21.3)	432(42.1)	278(27.1)	87(8.5)	11(1.1)
6. 육아종합지원센터	131(12.8)	330(32.1)	355(34.6)	177(17.2)	34(3.3)

구분 기관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7.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27(12.4)	281(27.4)	379(36.9)	214(20.8)	26(2.5)
8. 나너우리한가족센터	300(29.2)	450(43.8)	210(20.4)	58(5.6)	9(0.9)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4(7.2)	237(23.1)	398(38.8)	276(26.9)	42(4.1)
10. 자살예방센터	131(12.8)	323(31.5)	360(35.1)	189(18.4)	24(2.3)
11. 패밀리 사이트	303(29.5)	419(40.8)	248(24.1)	49(4.8)	8(0.8)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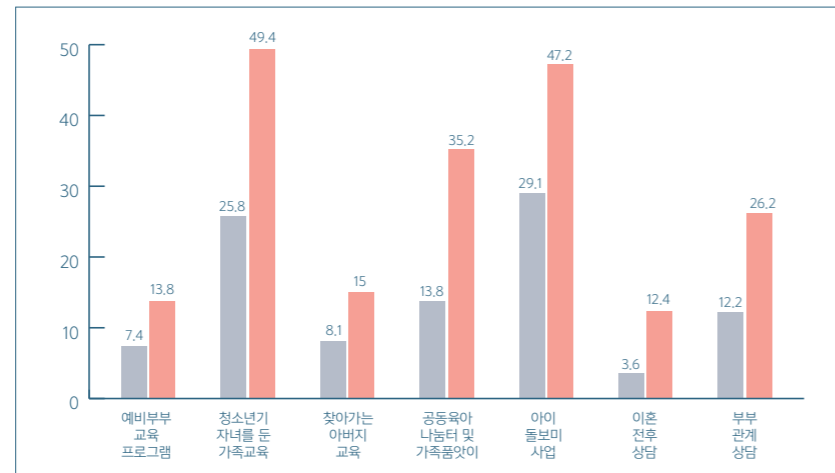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서울시민에게 물어본 결과,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높아 절반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가 넘어서 예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센터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구분 프로그램 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	227(22.1)	412(40.1)	284(27.7)	91(8.9)	13(1.3)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교육	233(22.7)	424(41.3)	273(26.6)	89(8.7)	8(0.8)
3.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244(23.8)	401(39.0)	272(26.5)	93(9.1)	17(1.7)
4.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217(21.1)	396(38.6)	295(28.7)	103(10.0)	16(1.6)
5. 아이돌보미사업	132(12.9)	293(28.5)	368(35.8)	203(19.8)	31(3.0)
6. 이혼 전·후 상담	262(25.5)	444(43.2)	254(24.7)	61(5.9)	6(0.6)
7. 부부관계상담	196(19.1)	411(40.0)	322(31.4)	86(8.4)	12(1.2)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1순위에 아이돌보미사업(29.1%)이 가장 높게 나왔다. 아이돌보미사업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도 가장 높았다(47.2%). 그 다음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교육 역시 매우 높고, 공동육아나눔터(35.2%)에 대한 요구도 높아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부부관계 상담(26.2%)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해외사례

독일 베를린시 : 가족포털(Zuhause in Berlin) 사이트

베를린시는 '가족우호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베를린시 가족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내어 베를린시와 구청, 관련기관, 프리랜서 등이 3년간 협업을 통해 가족포털을 완성했다. 베를린 시는 가족을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동체이고, 서로에 대해 걱정하고, 관심을 갖는 공동체라고 본다. 또 도시에서의 가족생활을 가족 울타리 내에서의 상호돌봄 뿐 아니라 대도시 자치행정이 제공하는 가족관련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의 돌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베를린시는 가족에 대한 확장된 기본개념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했으며, 수많은 가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다차원적 포털 구조이다. 이용자가 어떤 영역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찾고자 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가족포털은 정보제공, 지원 서비스 신청, 상담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검색은 아래 3가지 분야로 가능하다(김찬동, 2015).

- 주제별 영역 : 가족관계, 상담지원서비스, 건강, 교육과 취업, 재정, 여가시간과 문화, 민주주의 교육과 참여 → 주제 검색 후 세분화

- 가족상황별 영역: 다양한 가족형성단계, 긴급지원 필요상황, 교육과 일, 자신과 가족 돌봄 상황, 여가생활단계, 참여와 어울리기
- 가족구성별 영역: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성인, 조부모와 노인, 친구와 이웃, 가족을 위한 전문 인력
- 홈페이지 주소: <http://www.berlin.de/familie>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가족정책 수행의 주요 전달체계로, 서울지역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모든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족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자원 나눔 서비스를 통한 돌봄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	센터설치 장소
서울시	318-0227	중구 소파로 4길 6
강남구	3412-2222	강남구 개포로 617-8
강동구	471-0812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청소년회관 2층
강북구	987-256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29길 6 (18년 1월 이사 예정)
강서구	2606-2017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관악구	883-9383	1센터-관악구 신림로 3길 35 (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3층
	883-9390	2센터-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광진구	458-0622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구로구	830-0450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09 4층
금천구	803-7747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노원구	979-3501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도봉구	995-6800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동대문구	957-0760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7층
동작구	599-3301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2층
마포구	3142-5482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
	322-7595	1센터-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730-7595	2센터-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홍제1동자치회관 2층
서대문구	322-7554	3센터-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2층
	576-2852	1센터-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2센터-서초구 사평대로 205 센트럴시티내파미에스테이션 2층
성동구	3395-9447	성동구 무학로 6길 9 3층
성북구	3290-1660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송파구	443-3844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양천구	2065-3400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은행정어린이집 4층
영등포구	2678-2193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용산구	797-9184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복합문화센터 3층
은평구	376-3761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종로구	764-3524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중구	2279-3891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중랑구	435-4142	중랑구 용마산길 36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길 6

홈페이지
familyseoul.or.kr

연락처
대표전화 : 1577-9337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집합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7년 현재 전국에 219개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	센터설치 장소
서울시거점	843-5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4층
강남구	3414-334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8 4층
강동구	473-4986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2층
강북구	945-738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4층
강서구	2606-203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관악구	883-9383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길 35 관악문화원 다문화복합시설 3층
광진구	458-06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5층
구로구	869-031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50 3층
금천구	803-774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노원구	979-350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3 가길 94 4층
도봉구	990-543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동대문구	957-107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동작구	599-326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3층
마포구	3142-50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3층
서대문구	375-75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서초구	576-285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2층
성동구	3395-9445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6길 9
성북구	3290-166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송파구	403-3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41길 12
양천구	2699-69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8길 5-7 지층
영등포구	846-54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4층
용산구	792-91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3층
은평구	376-373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종로구	764-35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중구	2254-367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10층
중랑구	435-4149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길 369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홈페이지
https://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지원포털)

연락처
대표전화 : 1577-1366

서울
여성가족재단

2002년부터 다양한 서울 여성가족의 변화상에 맞게 여성 일자리, 일·가족 양립, 가족, 보육, 안전, 사회통합, 성 주류화 등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여러 가지 시민교육을 한다. 또한 서울에 있는 여러 여성단체와 커뮤니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하게 성장된 모임들이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크게 정책연구, 교육, 네트워킹 세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서울여성플라자라고 하는 여성 NGO의 사무·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타 정보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위탁으로 여성 취업·창업 기관들과 네트워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우 156-808

홈페이지

www.seoulwomen.or.kr/

연락처

전화 : 02) 810-5000 / 팩스 : 02) 810-5100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09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두리모·부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가족단위 사업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개발, 인식개선 사업,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수행기관 지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서울시 강서수도사업소민원센터 2~3층)

홈페이지

<http://seoulhanbumo.or.kr/>

연락처

전화 : 02) 861-3020 / 팩스 : 070) 7469-3024

서울특별시
가족친화지원센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제도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교육, 가족친화포럼, 가족친화사업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5층

홈페이지

<http://www.ffsb.kr/>

연락처

대표전화 : 02) 3479-7600

서울
학부모지원센터

서울학부모 지원센터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며 자녀교육과 관련한 고충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전담기구'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22 창덕여자중학교 내 왼쪽건물 1층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parents.sen.go.kr/>

연락처

전화 : 02) 318-1196, 1197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 시민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동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주민 3인'이상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성장 단계별 맞춤형 주민 지원,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마을 활동가 발굴, 육성 및 주민 네트워크 지원, 대안적 마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3층 317호(녹번동)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연락처

전화 : 02) 385-2642 / 팩스 : 02) 354-9280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새롭게 출발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람들의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 사회적경제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모임,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 활동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홈페이지

http://sehup.net/

연락처

전화 : 02) 353-3553 / 팩스 : 02) 383-3553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4년부터 서울시가 육아서비스의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출범했다. 이는 자치구별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시민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양육상담, 부모교육, 장난감대여등을 지원해 집에서 맘편히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 이용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 아이조아 서울 맞춤형설립 사업,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등 어린이집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우리동네보육반장을 통해 어린이집, 놀이시설,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돌봄공동체등 지역내 육아자원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부모에게 제공하고 '보육반상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내 육아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서울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	센터설치 장소
서울시	772-9814~7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4층
강남구	546-1735~7	강남구 삼성로 72길 7 3층
강동구	486-3516	강동구 성내로 6길 16
강북구	994-7480~1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수유동410-293)
강서구	2064-2730~2	강서구 수명로2길 50(내발산동)
관악구	851-2834	관악구 쑥고개로 128번지 2층
광진구	467-1827~9	광진구 동알로 56가길 31 3층(군자동)
구로구	859-5678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금천구	894-2264~5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노원구	930-1944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상계동)
도봉구	3494-3341~2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306-10)
	2237-5800	동대문구 황물로 62(답십리동)
동작구	823-4567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3층(대방동 385-2)
마포구	308-0202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상암동1686)
	3217-9550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서초구	598-9340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47길 46
성동구	499-5675	성동구 난계로 160
성북구	918-8080~2	성북구 오패산로 10길19(하월곡동222-6)
송파구	430-7192	송파구 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양천구	2646-7790~1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신정동)
	833-6022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용산구	749-9673~4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이태원동)
은평구	351-3629,3630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구산동)
종로구	737-0890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3층
중구	2263-2626	중구 다산로 32길5(신당동) 3층 사무실
중랑구	495-0030~1	중랑구 망우로67길 10(망우동) 망우본동복합청사 6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24길 04515

홈페이지

seoul.childcare.go.kr

연락처

전화 : 02) 772-9814~9
팩스 : 02) 772-9820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을 덜기 위한 종합지원, 직장맘의 파워업을 위한 교육과 커뮤니티, 그리고 일·가족양립을 위한 직장·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정보

6개 자치구(강서, 구로, 동작, 마포, 서초, 용산, 종로, 중구)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자양동) 1층

홈페이지

www.workingmom.or.kr/

연락처

전화 : 02) 332-7171 또는 다산콜 120 + 5번 / 팩스 : 02) 335-1070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 역할을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지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전망과 고용 지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 및 협력 강화, 여성일자리 정보 허브/거버넌스 강화가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4층

홈페이지

http://www.seoulwomanup.or.kr/

연락처

전화 : 02) 827-0130 / 팩스 : 02) 827-0131

서울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분	대표전화	센터설치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827-0130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4층
여성발전센터	남부	802-0922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동부	460-2300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북부	972-5506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서부	2607-8791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중부	719-6307 마포구 토정로 35길 17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구	475-0110 강동구 양재대로 1390 신성빌딩 4층
	강북구	980-2377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층
	강서구	2692-4549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층
	관악구	886-9523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 1층~5층
	구로구	867-4456 구로구 공원로 63 희훈타워빌 2층
	노원구	951-0187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동대문구	921-2020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층
	동작구	525-1121 동작구 사당로 299 이수텐빌딩 2~5층
	서대문구	332-8661 서대문구 신춘역로 10 혜우빌딩 4층
	서초구	6929-0011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3
	성동구	3395-1500 성동구 무학로 2길 54 신방빌딩 1층
	송파구	430-6070 송파구 중대로 9길 34 대호빌딩 2층
	영등포구	858-4514 영등포구 영중로 61
	용산구	714-9762 용산구 청파로 139-21
	은평구	389-1976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2층
	종로구	765-1326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 2~4층
	중랑구	3409-1947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빌딩
장애	6929-0002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34 투에프코트빌딩 7층	

도심권
50플러스센터

도심권 50플러스 센터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인생 이모작 세대를 위한 중간 지원직으로 신 시니어를 위한 교육, 일자리, 정보, 문화 관련 복합 정보를 제공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센터이다.

기타 정보

이모작 열린학교는 50+세대가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서울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갖는 50+세대가 주도하는 배움과 나눔의 열린 학습의 장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

홈페이지

www.dosimsenior.or.kr

연락처

전화 : 02) 3672-5060 / 팩스 : 02) 3672-5061



서울가족 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
기획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eoulfamily.or.kr/intro/vision
집필진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수정(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흔(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펴낸 곳	서울특별시
발행	2017년 11월
편집 디자인 · 인쇄	함께내리는비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출판일련번호	여성 912-0001

본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11-5621-980-4

